

Ayoung 김

08/05/1

MOSCOW FURY AFTER B

Japanese Tit-for
suspec Russia
reveale

LARA.DEAUVILLE
@thelondonpaper.com

L.A.DEAUVILLE
@thelondonpaper.com

240225

Lugovoy. He said
"significant body
against Lugovoy
... world

ROMATIC ...

Charoils

now Was

BY JOHN HIGGINS

RICHARD.MORIARTY

MER Russian spy Al





Ayoung Kim
Ephemeral Ephemera

Design: Jin Jung
Translation: Young Kang, Ayoung Kim
Proof Reading: Helen Gu (Korean),
Benjamin Kaplan, Guy Archard(English)
Print: Ilhung
Publication: Media Bus
Date: October, 10, 2008

A Stage of Ephemeral Images: The
‘Shortcuts’ of Ayoung Kim
Kang, Su-mi

Returning to the Scene of the Crime
Lucy Soutter

Ephemeral Ephemera
Ayoung Kim

11 Oct, 2006, Guardian Unlimited

Accept
North Ko-
rea into
the nucle-
ar club or
bomb it

김아영
이페메랄 이페메라

디자인: 정진열
번역: 강영, 김아영
교정: 구정연 (한글), 벤자민 카플란, 가이 아차드 (영문)
인쇄: 일흥인쇄
발행: 미디어 버스
발행일: 2008년 10월 10일

덧없는 이미지의 무대:
김아영의 ‘숏컷’
강수미

사고 현장으로 되돌아가기
루시 수터

이페메랄 이페메라
김아영

2006.10.11, 가디언 언리미티드

북한을 핵
보유국 클럽
에 가입시키
거나 당장
폭격하라

now

1 Nov, 2006, CBSnews

Mystery of the poi- soned spy

10 Feb, 2007, Yonhap news

Entertainers' suicides in succession, why?

12 Nov, 2006, Ecojournal

Dead whale found on the shore of Jeju island

2006.11.1, 씨비에스 뉴스

독살된 스파 이 미스테리

2007.02.10, 연합뉴스

연예인의 잇단 자살, 왜?

2006.11.12, 에코저널

제주 해안서 죽은 고래 발견

2007.5.15, 더 런던페이퍼

대공습의

15 May, 2007, Londonpaper

Chaos caused by monster of Blitz

21 April, 2007, BBC News

Headless body found in Thames

29 May, 2007, National News

Man hits bus roof after 70Ft death plunge

괴물이 일으킨 혼란

2007.4.21, 비비씨 뉴스

템즈강에서 머리 없는 시체 발견

2007.5.29, 내셔널 뉴스

70피트 높이에서 투신한 남자 버스 지붕에 부딪히다.

28 March, 2007, Guardian unlimited

British teacher found buried in bathtub of sand

Biography

This publication is supported by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part of NArT 2008 program.

All typefaces in this book were chosen from The 10 most popular typeface families in American newspapers (Study by Ascender Corporation), include Franklin Gothic, Helvetica, Utopia, Times, Nimrod, Century Old Style and Interstate.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stored in a retrieval system or transmitt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electronic, mechanical, photocopying, recording or otherwise, without the prior consent of the publisher.

Copyright © 2008 The authors for the texts and the artist for the photographs.

2007.3.28, 가디언 언리미티드

모래 욕조 속에서 발견된 영국인 교사

약력

이책은 서울문화재단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책에 사용된 한글글꼴들은 한국의 주요일간지 또는 보도매체에서 주로 사용되는 글꼴들을 중심으로 선택되었습니다. (한겨레 결체, 조선일보 체, SM 신명조체, 산돌명조체, SM 태명조체, 서울 남산체, 산돌 고딕체, SM 고딕체)

모든 글과 사진의 저작권은 각 저자와 작가에게 있습니다.



NArT 2008 New Artist Trend

A Stage of Ephemeral Images: The ‘Shortcuts’ of Ayoung Kim

Kang, Su-mi

(Aesthetics, Art Critic)

덧없는 이미지의 무대: 김아영의 ‘숏컷’

강수미

(미학)

1. Differences in Time

As she was riding the tube, reading the daily newspaper, the ex-KGB spy Alexander Ritvinenko had already passed away. He was killed after drinking poisoned tea at a hotel bar in London. Was it his death that was too early or was the delivery of the news too late? This kind of conflicting timing happens in some other instances as well. The poisoning of the spy, although occurring in 1st of November 2006, was reported in the news as an issue afterwards. However, it was in 2007 that the artist created her fictional artwork based on the article after reading about this event in the news.

The artist mentioned above is Ayoung Kim, who lives and works in England. The work that is referred to here is a photographic piece by the artist and all of the incidents are based on real stories. When writing about the *Ephemeral Ephemera* series of photographs by

1. 시차들

그녀가 지하철을 타고 가다 오늘의 뉴스로 뻑뻑한 신문에서 그 소식을 접했을 때, 전 KGB 스파이 알렉산더 리트비넨코는 런던의 호텔 바에서 차를 마시고 의문의 독살을 당해서,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그의 죽음이 너무 이른 것일까? 아니면 그녀에게 전달된 ‘뉴스(news)’가 너무 늦은 것일까? 시간의 어긋남은 이것만이 아니다. 위 ‘스파이 음독 사건’은 2006년 11월 1일에 일어났고, 사건에 대한 ‘뉴스’는 며칠 후 신문에 실렸다. 하지만 뉴스를 읽은 그녀가 그 기사에 근거해 허구로 꾸민 ‘예술작품’의 제작 연도는 2007년이다.

그 문제의 예술작품은 현재 영국에 거주하면서 작업하고 있는 김아영의 사진 한 점을 지칭하는 것으로, 위에서 말한 ‘그녀’는 곧 이 작가 김아영이고, 위의 사건들은 실제로 일어난 일들이다. 이하에서 나는 김아영의 <이페메랄 이페메라-Ephemeral Ephemera> 시리즈 사진 작품을 논할 것인데, 서두를 소설처럼 읽힐 수도 있을 이야기로 시작한 이유가

Kim, I deliberately started with a story that may have sounded somewhat like a novel. This is because one of the crucial elements in Kim's work seems to be the timing of each incident. Her work appears surreal, yet somehow realistic at the same time, lending a sometimes conflicting, changing, and mysterious feel. In order for the readers to get a glimpse of the artist's methodology and to visualize this atmosphere, I attempted to follow the style of author Raymond Carver in the introduction.

Kim suggests that the routine and often mundane news from the paper or the internet, "reveals the characteristics of consumerism in the media as well as the limitations of the many types of our lives." This was the impetus for her to begin to scrap various articles dealing with the daily lives of the folks in England and her home country of Korea as a reaction to this fleeting tendency of the news. As was indicated earlier, Kim steps forward by giving life to these transitory and short-lived articles through her own visualization. (Does not this seem like the right context for a clichéd statement such as "Life is short, but art is long?") Furthermore, we need to consider why Kim has titled her work *Ephemeral Ephemera*, which is neither an easy nor familiar expression. The English word,

있다. 그것은 김아영의 작품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사건들의 시차'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시차들이 만들어내는 작품의 비현실적이거나 아니면 극히 현실적이어서 모순으로 보이는 차원, 이질적이고 비밀스러운 분위기, 그리고 사건들의 시차를 시각이미지로 다뤄내는 작가의 방법론을 미리 조금 선보이기 위해, 나는 이를테면 레이먼드 카버(Raymond Carver)의 문체로 이 글을 시작해 본 것이다.

김아영은 우리가 매일 읽지만, 읽은 후 별 고민 없이 폐기해 버리는 신문이나 인터넷 뉴스가 "다양한 삶들의 유한성과 미디어의 소비적 특성을 여과 없이 발산"한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그녀는 자신이 살고 있는 영국과 고국인 한국의 그 하루살이 기사들, 뉴스들을 읽고, 그것을 '스크랩'하기 시작했다. 물론 앞서 시사했듯이, 작가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덧없고 한시적인 기사들을 시각이미지 작품으로 만들어 비교적 긴 생명을 부여하고 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는 통속적 수사가 맞는다면.) 여기서 우리는 김아영이 왜 자기 작품에 '이페메랄 이페메라'라는, 결코 쉽지 않고 친숙하지도 않은 이름을 부여했는지 유추해야 한다. 영어 단어 'ephemera'는 '지극히 덧없는 것, 하루살이, 대수롭지 않은 사물'을 지칭하는 용어로, 'ephemeral'은 그 형용사이다. 따라서 같은 뜻의 형용사형과 명사형을 접속시킨 위 제목을 우리가 굳이 한글로

‘ephemera’ is defined as ‘anything short-lived, creatures that last only one day, and things that are important for only a short time’, while ‘ephemeral’ is simply its adjective form. The title, composed of the noun and its adjective form of the same root, may be translated into something like ‘transitory transitoriness’ or a ‘whopping fleeting thing’. In short, the title for the series suggests that all of the issues addressed by the artist, including a) current affairs, incidents, and accidents, b) the subsequential reporting of these events by the news and media, and c) the act of reading this ‘new’ news after the fact through the routine and consumerist channels of the reporting, are somehow related to this idea of ephemera and tend to share it as a common denominator.

It might be appropriate here to suggest a twist of meaning, as ephemera usually signifies items designed to be useful for only a short time that may be kept as a part of personal collection of items like leaflets, tickets, etc. What is noteworthy here is the fact that Kim’s photography can be seen as ‘ephemeral ephemera’ under this second meaning. In other words, the transient things that drift along among the people (the ephemera of the news) run out of their use or value and are eventually scrapped on Kim’s list. They are then given a new

번역하자면 ‘덧없이 덧없는 것’ 또는 슈렉을 흉내 내서 ‘겁나 덧없는 하루살이’ 정도가 될 것이다. 요컨대 작가의 시리즈 작품 제목은 일단 자신이 다루는 소재, 즉 ㉠시사, 사건, 사고, ㉡그것을 사후(事後)에 전달하는 뉴스, ㉢그 ‘뒤늦은 새로운 소식’을 일과적이고 소비적으로 읽는 행위, 이 ㉠㉡㉢ 소재들의 공통 속성 혹은 생리인 ‘덧없음’을 지시하고 있다고 읽어야 한다. 하지만 이쯤에서 다시 한 번 의미의 반전을 말해야겠는데, 사실 ‘이페메라’는 앞서의 뜻과 더불어 ‘쓰임이 다한 후 수집품이 되곤 하는 전단, 티켓 등의 자질구레한 종이 아이템들’을 지시한다. 인터넷 옥션 같은 데서 고가에 팔리는 ‘비틀즈 공연 포스터’ 같은 것을 떠올리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김아영의 사진 또한 두 번째 의미의 ‘이페메랄 이페메라’일 수 있다는 사실이다. 요컨대 세간에 부박하게 떠도는 덧없는 것(뉴스 이페메라)은 ‘뉴스’로서의 용도를 다하거나 가치를 상실한 후, 김아영의 스크랩 목록에 포함되고, 그것을 원자재로 가상 상황을 연출해 찍은 작가의 사진 작품 속에서 새로운 삶(수집품 이페메라)을 살게 되는 것이다. ‘시차’는 이처럼 김아영이 현실의 일들을, 끊임없이 다른 층위의 삶으로, 다른 양태의 존재 형식(물리적 사건-텍스트 기사-허구적 사진)으로 이행시키는 데 필수불가결한 요소이자 장치이다. 그런 맥락에서 내가 이제까지 말한 ‘시차’는 실재와 재현 활동 간의 ‘시간 차’이기도 하지만 그 둘 사이의

breath of life (the ephemera of collection) in the photographs that were taken of them and used as raw materials for her virtual scenes or stages. The notion of time difference serves as an indispensable element in transforming the actual occurrence into another type of existence (the physical incident – the resulting article as a text – the resulting fictional photograph). In this context, the idea of timing that I mentioned above suggests not only a discrepancy in time between the reality and the way it is represented, but also a gap in the meanings engendered during this process of transformation.

2. Photo Montage

The inevitable differences in time between what actually happened, the reported article, and the work created with the addition of the artist's creative imagination and capacity to reinterpret form, all play other roles in addition to being parts of the content of her work. We can see the inseparable relationship with this notion of timing in the formal aspects of Kim's work. The form of the *Ephemeral Ephemera* series is a type of photo montage. In terms of its methodology, this particular type in photography, which combines parts of several photographs, is aimed at revealing

이행 사이에 빚어지는 '의미의 간극'이기도 하다.

2. 포토몽타주

과거에 실제 일어난 사건과 그것을 전달하는 기사와 또 이후 그 양자에다가 작가가 상상력과 이미지 조형능력을 부가하여 만든 작품 사이에는 필연적으로 시차가 존재하는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러한 시차가 김아영의 작업에서 작품의 '내용'을 구성하는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시차를 김아영 작품의 형식과도 밀접한 상관성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페메랄 이페메랄' 시리즈는 모두 일종의 '포토몽타주' 형식을 취한다. 서로 원천이 다른 여러 사진들의 부분을 조합(montage)하는 이 독특한 사진 형식은, 말 그대로 실재와 그것의 재현 사이에 본질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시간의 격차, 의미의 간극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면서 동시에 융합하는 방법론적 형식인 것이다.

그러나 이때 내가 말하는 포토몽타주는, 이 형식으로 가장 유명하고 중요한 작가인 20세기 초중반 베를린 다다이스트 존 하트필드(John Heartfield)의 그것과 연속성을 갖는 동시에 김아영 작업만의 특이성 또한 포함한 의미에서이다. 하트필드가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말기와 히틀러의 나치 제국 시기 동안, 여러 장의 사진을 한 지면 위에서 몽타주하고, 거기에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as well as covering up the differences in time and the gaps in meaning that are inherently unavoidable between the reality and the representation. The idea of photo montage in my mind, however, is strongly linked to that of John Heartfield, a Dadaist in Berlin working in the early and mid-20th century. Thinking of Heartfield, who is an artist well-known and notable for this style, emphasizes the uniqueness of Kim's work. In Germany, during the late Weimar Republic and Hitler's Nazi regime, Heartfield montaged various photographs together in one space and recomposed various texts to make political messages. His work was recognized as revolutionary in terms of visual art, and on a political level. Kim's series is derived from Heartfield's photo montage, but differs in that she does not use the method of gathering and combining pre-existing photos onto only a flat plane. Kim associates the photo images of the past in relation to their corresponding articles in the media and, using her own imagination, locates actual sites that are suitable for the artist to take her own pictures. The images of these fictionalized sites, figures, and objects selected from pictures the artist took herself are then montaged and transformed into a three-dimensional stage where virtual events occur. The

텍스트를 다시 재구성한 포토몽타주는, 시각예술영역에서든 정치적 차원에서든 혁명적인 것이었다. 김아영의 시리즈 사진은 이러한 하트필드의 포토몽타주 기법을 기본적으로 원용한 것이지만, 그녀의 작품은 '평면' 위에서 '기성 사진들'이 헤쳐 모이는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 작가는 이미 자신이 접한 미디어 기사에 입각해 과거 사건의 이미지를 유추하거나 연상하고, 다시 그 자신의 상상에 부합하는 현장을 헌팅 하여 사진으로 찍는다. 그리고 이렇게 직접 찍은, 그러나 분명히 실제 사건으로 보면 허구적 재현의 장소와 인물과 사물 이미지인 자기 사진들에서 요소요소를 포토몽타주 하여 가상 사건이 펼쳐지는 3차원 무대를 만든다. 그 무대를 최종적으로 사진 찍은 것이 작가의 '이페메탈 이페메라'이다. 정리하자면, 하트필드가 기성(ready-made) 사진을 몽타주하여 자기 고유의 정치적 메시지를 전한다면, 김아영은 기성 뉴스를 콜렉션하여 자기 고유의 사진을 만든다. 또 후자의 포토몽타주는 처음부터 끝까지 평면 위에서 작업하는 전자와는 달리 평면(허구의 현장 사진)-입체(그 사진으로 몽타주한 무대)-평면(그 무대를 찍은 사진)으로 이동하면서 다(多)차원성을 획득한다.

가령 '이페메탈 이페메라' 시리즈 중 하나인 “북한을 핵 보유국 클럽에 가입시키거나 당장 폭격하라”라는 작품을 보자. 2006년 10월 11일자 영국 가디언(Guardian)지 인터넷 판은 이와 같은 헤드라인의 칼럼을 게재하며,

final photographic images result in Kim's *Ephemeral Ephemera*. To summarize, while Heartfield delivers his own political message through the montage of ready-made photographs, Kim generates her own photographs by collecting ready-made material from the news. In addition, the latter type of photo montage, unlike the former in its characteristic of two-dimensionality, attains a type of multi-dimensionality through the transformation the two-dimensional (the photographic images of the fictionalized site) into the three-dimensional (a stage montaged from the various photo images) and then returns to the two-dimensional (the resulting photo of the stage).

For example, let us take a look at “Accept North Korea into the nuclear club or bomb it now, 11 Oct, 2006”, part of the *Ephemeral Ephemera* series. Under this headline, the internet version of The Guardian Unlimited reported on Oct. 11, 2006 an article suggesting a solution to the then-threatening issue of North Korean nuclear power. According to Kim, while comprehending some of the Western attitude towards North Korea, she felt, as a Korean, a hint of curiosity as well as sense of powerlessness towards the North, a country that she had never been to. Based on articles she collected as well as her own sentiments, Kim created this

당시 전세계적 위협으로 떠오른 북한 핵무기 문제에 대한 처방을 제시했다. 이 칼럼에서 서구의 북한에 대한 시선을 읽어낸 김아영은 자신이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북한에 대한 “호기심과 동시에 자국민으로서의 무력감”을 느꼈다고 한다. 그리고 우리가 보다시피 그 수집한 기사와 자신의 정서를 토대로 “북한을...”이라는 작품을 만들어냈다. 화면 중앙을 원근법적 공간감으로 관통하는 도로 주변에, 일제 강점기 말기나 남한의 6-70년대를 환기시키는 시대착오적 점포들(“골덴라사”, “합동공업사” 따위)이 늘어져있는, 언뜻 보면 드라마 세트장 같은 사진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 사진에서 가장 명시적이고 결정적인 메시지 역할을 하는 이미지는 검은 하늘 위에 횡으로 걸린 ‘북한 선전화플래카드’와 자갈밭 도로 위에 메다 꽃혀 있는 포탄 비슷한 ‘핵무기들’이다. 그 사물들은 사진 외부에 덧붙여진 표제(caption, 대표적으로 작품 제목)를 대변하는 이미지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이 사진 속에 아주 얇은 깊이, 그리 폭이 넓지는 않지만 확실히 존재하는 3차원 공간을 느끼도록 해 주는 매우 중요한 이미지 요소들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김아영이 최종적으로 전시 작품으로 내놓은 사진들은 일종의 무대처럼 사진 조각들로 구성된 3차원 모형공간을 찍은 것이다. 그 덕분에 마지막 결과물로서의 사진작품은 일정한 폭과 깊이의 환영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 실제 모형의 공간감이 사진의 평면 위에서 재현되면서

artwork. Alongside a road that divides the center of the field creating a sense of spatial perspective, stand several slightly out-dated signs, reading slogans such as ‘Golden Rasa’ or ‘Hapdong Gongeopsa’, bringing to mind the late period of the Japanese Occupation of South Korea or the period in 1960s or 1970s. At first glance, the setting feels much like a drama set. Among the items, the most obvious and visible message comes across through the nuclear weapons that are thrust into the gravel road along with the North Korean propaganda placard hung over a blackish sky. Yet, the role of these images is not just to represent the captions in the title of the piece. Rather, they lead the viewer to feel a sense of three-dimensionality, even though the physical work itself is quite shallow and not very wide. As described earlier, the resulting final pieces become photo images of a newly generated model space which is in fact three-dimensional. This allows the resulting photographs to give off the illusion of having some breadth and depth. The unique and unusual atmosphere of Kim’s work is caused by the actual spatiality of the models being re-represented on a flat plane, leading to illusory images that are neither two-dimensional nor three-dimensional. In other words, it feels unrealistic, yet also

발생한 2차원도 아니고 3차원도 아닌 환영(illusion)은, 또한 김아영 사진의 독특한 분위기, 그러니까 비현실적이면서도 상당히 객관적(objective)이고, 초현실적이면서 동시에 감각적으로 익숙한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이를테면 그 분위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길들여진 시선으로 바라보는 현실에서 감지하기에는 과장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토샵 프로그램 상에서 합성한다고 해서 간단히 얻어지는 일은 결코 없는, 그런 종류의 진실을 깔고 있다.

3. 숏컷의 이페메랄 이페메랄

서두에 잠깐 내가 흥내 낸 카버의 소설은 미국 사회, 평범한 가정의 일상에만연해 있는 권태와 그 비슷한 양으로 잠재하고 있는 위기, 그리고 이런 모순들의 동거를 정확히 묘파한 문학예술로 평가 받는다. 그리고 이 극히 미국적 삶의 작가(Author)가 쓴 단편들과 시를 각색하여 로버트 알트만(Robert Altman) 감독이 영화화한 ‘숏컷 Short Cut’은 카버 문학의 특수성을 영상 메커니즘으로 뛰어나게 전이(轉移)시킨 또 다른 예술적 성과다.

그런데 왜 나는 갑자기 카버와 알트만의 문학과 영화에 대해 떠든 것일까? 그것들이 김아영의 ‘이페메랄 이페메랄’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 셋, 즉 카버의 문학, 알트만의 영화, 김아영의 사진은 이렇게 셋을 일직선상에 늘어놓는다고 해서 서로 인과성이 있다거나 수평적 단순

objective, and surrealistic, yet somewhat familiar to our senses. The mood, so to speak, can be said to imply a kind of truth, even if the resulting images may be too exaggerated to be perceived from a strictly realistic and conventional perspective and at the same time are not attainable through a Photoshop-generated composition alone.

3. *The Ephemeral Ephemera of the Shortcut*

The novel by Carver that I mimicked in the introduction has been evaluated as a literary work that reaches profound insight into the boredom prevalent in many households in American society, as well as the resulting hidden crisis that can develop and the combinations of these contradictions. *Short Cuts*, a film by Robert Altman is based on the short novels and poems by Carver, who is often seen as a representative author of typical American life. This film achieves another impressive artistic accomplishment as it surprisingly converts the specialty of Carver's literature into a video format.

What on earth do they have to do with Kim's *Ephemeral Ephemera*? From my point of view, the alignment of these three categories, namely, Carver's literature, Altman's film, and Kim's

비교가 가능하다는 뜻은 아니다 내가 보기에 한 지점에서 상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비슷한 '의미의 성취'를 이루고 있다. 그 지점이란 이들이 예술적 의도 속에서 집요하게 관찰하는 곳이 '현실 바로 그 차원'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비슷한 의미의 성취란 이 셋이, 겉으로 견고하게 짜여 있는 현실 내부에 각자의 장치와 방법론을 이용하여 침투함으로써, 현실이 쓰고 있는 가면에 '짧은 상처'를 입히고, 우리가 현실의 진짜 면모에 접근할 수 있는 '지름길'을 낸다는 점이다. 우리가 내내 논했듯이, 김아영은 일상적으로 매일 쏟아지는 각종 뉴스들을 '통해' 현실을 만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사실 그 뉴스들을 전달하는 매스미디어 자체는 현실의 일부이다. 그러므로 김아영의 관찰은 중개된(mediated) 현실 너머 그것을 포괄하는 현실까지 뻗어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동시에 그런 관찰을 통해 작가는, 러시아 스파이 독살 사건을 무대화한 작품이나 핵폭탄이 준비하게 박혀있는 북한 시가지 풍경을 상상으로 구현한 작품에서 보듯, 정보성, 객관성, 중립성을 표방하는 언론의 기사들이 건드리지 않는 현실의 은폐된 부분에 작은 상처를 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상자인 우리는 그 작은 상처들로 이루어진 무대, 즉 김아영의 '이페메랄 이페메라' 사진들을 보면서 현실의 내부를 관통하는 지름길로 들어선다.

이제야 밝히는 것이지만, '숯컷'은 '짧은 상처', '지름길', '영화에서 짧게 찍은

photography, does not lead to a possibility of any linear type of comparison among them or to a cause-and-effect relationship. They can perhaps be related by their similar achievement in meaning and can be said to share one element of commonality. This similarity is that they all tend to focus their primary efforts on the level of reality itself in their artistic intentions. This similar achievement in meaning signifies that these three works intrude on the apparently solid nature of reality using each artist's own tools and methods that eventually inflict small wounds on the mask of reality and make a shortcut for us to gain easier access to the genuine nature of reality. As we have mentioned from the beginning, Kim seems to encounter reality by means of the various kinds of news that we are bombarded with on a daily basis. In actuality, however, the mass media that delivers the news is a part of this reality. Therefore, Kim's exploration should be seen as expanding toward a reality encompassing this form of mediated reality as well. In addition, as seen in the stage settings of her work that narrate a Russian spy murder case or materialize a North Korean downtown landscape complete with nuclear weapons sporadically sticking out of the ground, Kim inflicts small slits to

컷들'이라는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위에서 내가 이런저런 비유를 들었던 것은 사실 이런 의미들의 '쑏컷'을 염두에 두고서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왜 이 사실을 밝히는가? 그것은 김아영의 사진이 영상 이미지로서 '짧게 찍은 컷들의 몽타주'라는 말을 덧붙이고 싶어서이다. 동시에 결정적으로 이 작가의 시리즈 사진에 '쑏컷의 이페메랄 이페메라'라는 이름을 부여하기 위해서이다.

the hidden reality that journalism often ignores through slogans of information, objectivity, and impartiality. As the final appreciator, the viewer is lead into a shortcut providing a path to the inside or true nature of reality through the photographs in *Ephemeral Ephemera*, or in other words, a stage composed of little slits.

It is important to note here how the metaphors in this review are mostly concerned with the diverse definitions of the phrase ‘shortcut’, which has three different kinds of meanings including a short or small slits, the shortest way, and the shortcut scenes of a film. I would like to suggest that Kim’s photographic work is a type of montage of short-cut images, and entitle *The Ephemeral Ephemera for the Shortcuts*.

Returning to the Scene of the Crime

Lucy Soutter

Weegee was the first photographic ambulance chaser, the first to get his hands on a police radio and follow its calls through the night to photograph broken bodies, sobbing survivors and fascinated onlookers. He was the first to understand that the victims of crime and disaster are celebrities, shooting stars in the chaotic dark sky of modern life.

Andy Warhol was the first to understand that newspapers and television are the vehicles of disaster stardom, that to multiplying an image is to sear it onto the mind's eye. Thanks to the media, Warhol could do his ambulance chasing from the comfort of his own studio. He could choose the most thrilling newspaper photographs and amplify them with scale and repetition, his silkscreen canvases bringing suicide, riot and poisoning into the gallery and museum for the first time. Who knew that these spectacular casualties of modernity would have such an important role to play in elevating photography to its current status at the center of fine art practice?

사고 현장으로 되돌아가기

루시 수터

위지 Weegee는 구급차를 쫓는 최초의 사진작가였다. 그는 처음으로 경찰 무전기를 입수했고, 밤을 뚫고 통화를 추적해 부서진 신체와 흐느끼는 생존자들을 찍어 방관자들을 매혹시켰다. 그는 범죄와 참사의 희생자들이 스타임을, 현대적 삶의 혼돈스러운 검은 하늘 속으로 지는 별들이라는 것을 이해한 최초의 사람이었다.

앤디 워홀은 신문과 텔레비전이 재난을 스타덤화하는 매체라는 것을, 이미지의 증식이 마음의 눈에 닿아서는 오히려 이미지를 시들게 한다는 것을 이해한 최초의 사람이었다. 미디어에 감사하게도, 워홀은 자신의 안락한 스튜디오에서 구급차를 추적할 수 있었다. 가장 스릴 있는 신문 사진을 골라 자에 대고 확대하거나 반복할 수 있었으며, 그의 실크스크린 캔버스는 처음으로 자살, 폭동 그리고 독살을 갤러리 및 미술관 안으로 들여 올 수 있었다. 이렇듯 모더니티의 스펙터클한 참사들이 사진을 현대 미술의 중심부로 끌어 올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는가?

사진을 이용한 1980년대의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은 연출, 도용, 절단, 재구성한

The photographic postmodernists of the 1980s secured photography's place in the art market and institutions with images that they staged, stole, chopped up and reconstituted. Even death and physical decay seemed to be constructions of culture, as Cindy Sherman showed in seductively grotesque images of masks, prosthetic body parts and fragments of herself discarded on the oozing urban junk heap.

Born into a postmodern world, and self-cast as a nomad caught between cultures, Ayoung Kim returns to the scene of the crime. But where Weegee found human drama, Warhol found visual sensation and Sherman found layers of remove from human experience, Kim goes in search of herself. A dutiful student of Guy Debord and Jean Baudrillard, Kim knows that the Society of the Spectacle is triumphant, and that we have entered an order of representation in which the copies have no original. And yet... Mid-20th century existentialism demanded that individuals face the meaninglessness of life squarely—that they proceed in full knowledge that there is no god, no heaven and no redemption. Kim faces the postmodern crisis of representation with a similar courage. She deconstructs and reconstructs a world of images to explore her own place within it.

이미지들로 미술 시장 및 학계에서 사진의 위치를 공고히 했다. 신디 셔먼의 유혹적으로 그로테스크한 가면 이미지들, 도시의 질척한 쓰레기 더미 위에 신체 모형물 및 자신의 신체 부위를 유기한 모습들이 보여주었듯, 죽음과 물리적 부패조차 문화적 소산이 되는 듯 했다.

포스트모던 세상 속에서 태어나 자발적으로 문화 사이의 유목민이 된 김아영은 사고의 현장으로 되돌아간다. 그러나 위지가 휴먼 드라마를 찾고 워홀이 시각적 센세이션을, 셔먼이 인간 경험으로부터 벗어난 충위를 찾는 지점에서 김아영은 자기 자신을 찾아 나선다. 기 드보와 장 보드리야르의 충실한 학생으로서 김아영은 스펙터클의 사회 Society of the Spectacle가 승리했음을 알고 있으며, 우리가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 복제들로 이루어진 재현의 순리 속으로 접어들었음을 알고 있다. 또한 한편, 20세기 중반의 실존주의는 개개인들에게 삶의 무의미함을 직시하기를 요구했었다 - 신의 부재와 천국의 부재, 그리고 구원의 부재라는 완전한 앞 속으로 전진하기를. 김아영은 유사한 용기로 포스트모던 속 재현의 위기를 마주한다. 그녀는 스스로 탐험할 공간을 만들기 위해 이미지의 세상을 해체하고 재구성한다.

현기증 나는 각도의 투시는 뒤바뀌고 어긋난 곳에 위치한 그녀 자신의 캐릭터를 연출할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한다. 바로 근방의 골목에서 벌어진 재난 속에서, 혹은 (그들이 사라지는 순간까지) 스스로를

Her dizzying angular perspectives provide sets for staging herself, a character dislocated and displaced, finding echoes of her own experience in disasters that happened just around the corner, or to girls whose experience as students abroad mirrors her own (until the moment they disappeared). Meaning emerges from Kim's fearless examination of the meaninglessness of these small catastrophes. She cannot unlock the mystery of Alexander Litvinenko's death or an anonymous city suicide; the construction of each dense delirious image is an opportunity for the artist to project herself imaginatively into a scenario, to probe its poetic and metaphorical possibilities. Wordplay, classical mythology and visual puns are enlisted in a dream-like logic that brings the stories new life. Each cityscape becomes its own self-contained world, drawn from world events, but ultimately autonomous of them. Kim is not the first to explore the urban crime scene, but she is the first to explore it in this way.

Ayoung Kim restages the crime with the cool logic of the detective and the gruesome fascination of the voyeur. Her cutting and pasting takes place in three dimensional space, yielding impossible spaces for the eye to penetrate. In the process of montage some of the original

반영하는 외국인 학생 신분의 소녀에게서 이 캐릭터는 자신의 경험의 메아리를 찾는다. 이 작은 불행들의 무의미함에 대한 작가의 두려움 없는 관찰로부터 의미가 떠오른다. 그녀는 알렉산더 리트비넨코의 죽음이나 씨티 구역에서 자살한 무명의 인물에 대한 비밀을 밝힐 수 없다. 이 뻘뻘하고 열편 이미지 구성은 시나리오 속으로 작가 자신을 허구적으로 투사할 수 있는 기회임과 동시에 시적, 은유적 가능성을 증명하는 기회가 된다. 이 꿈같은 논리 속에 포함된 언어 유희, 고전 신화 및 시각적 재담은 이야기에 새 생명을 부여한다. 각각의 도시 경관은 세상의 일화들로부터 끌어 올려져 제 자신을 담은 세상이 되지만, 궁극적으로 그것들로부터 벗어난 자율적인 것이 된다. 김아영은 도심의 범죄 현장을 탐험한 최초의 사람이 아니지만, 그것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탐험한 최초의 사람이 된다.

김아영은 탐정의 냉정한 논리와 관음자의 오싹한 매혹으로 범죄의 현장을 재구성한다. 그녀의 잘라 내기와 붙이기 cutting and pasting는 3차원 공간 안에 자리하면서 시각적 침투가 불가능한 공간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몽타쥬 과정을 통해, 이미지가 지녔던 본래의 의미의 일부는 사라지고 또 다른 의미들이 생겨 난다. 희망은 여기에 있다. 작품은 현대적 삶의 타블로이드 신문 더미에서일지라도 새로운 발견이 있을 수 있음을 이야기한다. 작품은 또한 애조 어리다. 작가는 잠시 멈추어 이 비천한

meaning of the images is lost, and other meanings accrue. There is a hopefulness to this project. The work argues that fresh discoveries can be made, even in the tabloid detritus of contemporary life. The work is also elegiac. Kim proposes that in pausing to look back at the settings of these sordid urban tragedies, we may rediscover something we have lost.

도심의 비극들을 재현한 장치로부터 과거를 돌아보기를 제안한다. 이로써 우리는 잃었던 것들을 재발견하게 될지도 모른다.

“It happens that the stage-sets collapse.”
Camus, The Myth of Sisyphus (Camus, 1955, p. 18)

It seems that the term ephemera has opposing meanings: “short-lived thing” or “something of no lasting significance” and “minor printed items of short-lived duration, use, or interest, especially those that subsequently become collectible”. It came across to me as a metaphor for human being with its contradictory meaning of “no lasting significance” and “becoming collectable”. It has been disturbing me for a long time, while I was trying to find the essential meaning of life. I had been considering that life in general was in totally absurd and irrational, but one rarely perceives our lives as valueless. Instead, in this inescapable path towards death, we are very much attached to life and we are ready to endure and struggle with it. We know we rather take it willingly, whatever may happen.

Camus intensely pursues this absurdity of human being in his book The Myth of Sisyphus. He writes, “...

“무대 장치들이 문득 붕괴되는 일이 있다.”
- 알베르 까뮈, ‘시지프 신화’ 중 p.28

영단어 이페메라 ephemera는 하루살이, 대수롭지 않은 물건 등을 지칭함과 동시에, 그 쓰임이 다한 후 수집품이 되곤 하는 전단, 티켓 등의 자질구레한 종이 아이템들을 가리키기도 한다. 아무런 중요성을 갖지 못하지만 수집품이 되곤 한다는 자명한 모순을 가진 이 단어는 내게 그 자체로 인간사에 대한 은유로 다가온다. 내가 매일 읽고 지나치는 신문이나 인터넷 뉴스는 다양한 삶들의 유한성과 미디어의 소비적 특성을 여과 없이 발산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나는 영국과 한국의 신문 기사와 뉴스를 스크랩하기 시작했다. 골라 낸 사건들을 사실에 근거해 새롭게 해석한 장면을 상상하고 스케치한 다음, 그 장면에 맞는 요소들을 현실에서 사진 찍은 후, 개체들을 오려 내 뒤섞은 무대 장치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무대 장치를 다시 평면의 사진으로 찍어 최종 이미지를 만든다. 각 이미지의 제목은 신문/뉴스 기사의 헤드라인과 날짜를 그대로 사용한다.

알베르 까뮈의 ‘시지프 신화’에 이런 구절이 등장한다 - “무대 장치들이 문득

in a man's attachment to life there is something stronger than all the ills in the world. ... In that race which daily hastens us towards death, the body maintains its irreparable lead. ... He belongs to time and, by the horror that seizes him, he recognizes his worst enemy. Tomorrow, he was longing for tomorrow, whereas everything in him ought to reject it. ...” It was the starting point of my work, Ephemeral Ephemera. This work in itself is a conflicting obsession to the both of life and its fragility.

According to Camus, human absurdity starts with sudden strangeness and hopeless feeling for the living itself. Once we seriously consider that our life is not infinite but mortal, there emerges a certain strangeness as to why we pursue our living further so eagerly. I was thinking on it deeply, especially when I was reading newspapers or browsing through internet news. The world seemed to be a pandemonium with every possible delusion and disorder. Many hopeless things started to catch my eye. I also thought this sense of despair exists only because my attention was focused on hopeless things. I thought that we try to do our best on our lives, and it might be the same for people who commit suicide, thief, commit violence or murder, and are subsequently reported on the news.

붕괴되는 일이 있다. 아침에 기상, 전차를 타고 출근, 사무실 혹은 공장에서 보내는 네 시간, 식사, 전차, 네 시간의 노동, 식사, 수면 그리고 똑 같은 리듬으로 반복되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이 행로는 대개의 경우 어렵지 않게 이어진다. 다만 어느 날 문득, ‘왜?’라는 의문이 솟아오르고 놀라움이 동반된 권태의 느낌 속에서 모든 일이 시작된다. ...” 그에 의하면 부조리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권태와 세상에 대한 낯설음으로부터 시작된다. 누구에게나 그런 순간이 있을 것이다. 잊고 지내던 삶의 유한성을 인식하고, 그토록 익숙했던 일상과 환경이 낯설고 기이하게 다가오는 순간이. 우리가 사는 하루 하루가 실은 죽음을 향한 나날들인데, 언젠가 사라질 육신으로 무엇을 위해 열심히들 살아 가는 걸까?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되새김과 동시에 습관에 의해 가리워져 있던 무대장치가 비로소 제 모습을 드러내고, 자신을 둘러싼 세상이 침투 불가능한 표면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인식하는 순간이다. 그리고 결국, 존재하고 살아가기 위한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하지만, 정말로 아무 이유가 없는 것일까?

나는 내게 밀어닥친 낯설음의 두께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지만, 또한 사람이기 때문에, “잊지 않고 사랑하고 먹고 신문을 읽었다.” (알베르 까뮈, ‘시지프 신화’ 중 p.28) 나는 내 방에서, 혹은 지하철 안에서 신문을 펼치고, 세상에서 벌어진 다양한 일들을 접하며 동요하다가 장을

Besides, the other confusion came from the life span of news media itself. The validity of news does not extend beyond many days. What I saw from there were traces of human lives detached from vivid reality. News represents each event, appearing and disappearing day by day. However, one rarely experiences bodily sensations from them. It seemed that each story literally emanates its ephemerality in its use. That is also how I appreciate the world without any physical experience as long as it is edited and modified representations. I might perceive a huge part of the outer world through those representations. “Since reality can be known only through the forms that articulate it, there can be no reality outside of representation.” Those stories are moving to the past as their daily use ends. One might not know which will be remembered and what will be forgotten.

I started to collect stories of real events recently shown in the media. Certain slices of human lives became my materials. These photographs represent various events that occurred recently in the world, being transformed into representations in news media. Those stories disturbed me with their vile or tragic, and therefore hopeless atmosphere. Those articles are from daily newspapers and internet news released in the UK,

덧고 삶으로 돌아오곤 했다. 거기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온갖 미혹과 아비규환이 있다. 때론 - 미디어의 특성상 - 어떤 영화보다도, 어떤 소설보다도 난잡하고 기괴하며 공포스럽다. 각각의 이야기들은 그 효용에 있어서 문자 그대로의 한시성 ephemerality 을 발하며 미디어 속에서 나타났다가 사라져 간다. 그것은 과거로 향해 가는 현재이고, 삶의 파편들이며, 동시대적 인간사를 참으로 편리하게 총체적으로 보여 주는 지표이다. 내 방엔 TV가 없기 때문에, 인터넷 매체와 신문은 내가 세상을 인식하는 유일한, 그러나 거대한 방식이다. 동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비슷한 인식 방법을 공유하고 있으리라 생각된다. 우리는 뉴스 미디어를 통해 살아 숨쉬던 삶의 사건들을 물리적으로 재현한 이미지와 텍스트를 소비하며 세상을 인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현실이 오직 형상을 통해 인식된 이후로, 재현의 영역 밖으로 더 이상 현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Linker, 1984, p392)는 말처럼,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 보는 것은 구체적 경험의 가능성이 소멸되고 소비 가능한 기호로 대체되어버린 세계이다. 다만 그 재현의 기호들이 스스로의 효용을 다 하고 과거로 사라져 감과 동시에 어느 것이 오래 기억되고 어느 것이 바로 잊혀질 것인지에 대해 우리는 알 수 없다.

나는 그렇게 나와 거대 세상을 이어주는 유일해 가까운 수단인 신문기사와 인터넷 뉴스를 보며 깊은 회의감에 빠져들었다. 사람들은 자신의

and in South Korea, where I am from. Whilst keeping each story in my mind, I photograph various surfaces from my surroundings and alter the images digitally according to the narrative. I sometimes visit the actual scene of crimes and events. Then I create three-dimensional photo montages with these photographic façades. They are temporary and fragile paper objects, ephemeral ephemera like our lives. I also demonstrate my personal interpretations while I make these stage-sets, I intend my images to hold the original context of the reality from which they originated, yet moulding a different level of meaning. For this, I put the original news headline as the title of image. It functions as trigger to stimulate spectators' imagination on it. The stage-set itself is a temporary paper construction and the reality effect from built-up photographs only exists through the camera with certain viewpoint and composition and eventually in the final image. These are ephemera, the "Items of short-lived duration, use, or interest" of ephemera, "a short-lived thing or something of no lasting significance".

Bibliography

Camus, A. (1955) <The Myth of Sisyphus>, London: Penguin, p. 15, 20

삶이 중요했기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고, 자살하고, 은행을 털고, 폭행을 하고, 전쟁을 일으킨다. 그러나 신문지상에서 그들의 삶은 소비적 기사거리에 불과할 뿐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과거로 이송되고 곧 잊혀진다. 유한적 삶이지만 우리는 모두 최선을 다 해 살아 간다. 어째서 그 결과들이 이와 같은 살인, 자살, 폭행, 전쟁이 되는가? 삶은 필연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드라마다. 그렇다면 나는 또한,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살아가는가? 비약하자면, 무로 마무리될 삶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나를 포함한 인간의 부조리, 그것이 이 작업 이페메랄 이페메라 Ephemeral Ephemera의 출발점이었다.

나는 미디어에 노출된 사건들을 수집했고, 그것들을 다시 재현하기로 했다. 한 때 굵직한 이슈로 떠올랐으나 대부분 시한이 만료되고 관심사에서 벗어난 사건들이 내 작업 재료의 주를 이룬다. 미디어상에서 주어진 정보를 통해 사건의 장면을 상상한 후, 내가 접한 현실에서 구체적 형태와 표면을 사진 찍고, 그것들을 문맥에 맞게 수정한 후 오려 세워 각각의 썬scene 을 구성한다.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사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지상에선 가끔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한다. 나는 그 믿을 수 없는 일들을, 혹은 사라져 가는 것들을 실재와 다른 방식으로 새로이 재현하기 위해 현실에 존재하는 형상들을 모은다. 이는 3차원 포토 몽타주임과 동시에 작은 무대 장치이기도 하다. 주로 죽음이나

범죄와 관련된 이 사건의 현장들이 지시하는 것은 우리가 오감으로 경험하지 못했기에 물리적 충격이나 감정 몰입에 한계가 있는 현실의 한시적 일화들이고, 그 한시성은 사진을 오려 세운 종이 무대 장치로 고스란히 이송된다. 이 견고하지 못한 무대 장치는 바람이 불면 쓰러지는 종이 사진들로 이루어져 있다. 나는 그 3차원 무대 장치를 다시 사진으로 찍어 2차원으로 보여주고, 수집한 신문/뉴스 기사의 헤드라인을 가져와 제목으로 사용한다. 최종 이미지의 현실효과는 오직 카메라 렌즈를 통해 생성된다. 카메라의 힘을 떠나는 순간 사물은 빈약한 종이 무대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 무용하다면 무용한 노동은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 우위에 두고 살아가는 각자의 삶 또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언제 무너질지 모를 무대 장치처럼 무르며, 그 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필연도 작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환기시키려는 노력이기도 하다. 그렇게 이 종이 무대 장치와 그것을 찍어 낸 2차원상의 사진은 이페메라(단명하는 삶)의 이페메라(쓰임)이 다한 후 수집품이 되는 아이템)이자, 현실의 조각들로 이루어진 퍼즐이 된다.

우리는 일생을 통해 무와 유의 얇은 틈 사이를 위태롭게, 그러나 기꺼이 살아간다. 미디어를 통해 버릇처럼 인식하고 지나치는 세상의 조각들이 어떤 이들에겐 우리가 사는 하루만큼 소중한다는 사실은 두 말할 나위 없이 자명한 것일 테다. 하지만 세상은 개개의

존재에 비할 수 없이 두껍고 견고한
것이며, 결국 죽기 위해 그 안을 살아가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낯설 수밖에 없다는
나의 고민은 끝나지 않았다. 다만, 삶의
가치와 유한성에 대한 모순적 집착이기도
한 이 작업을 해 나가는 동안만큼은 나
자신의 유한성을 잊어도 좋다는 또 다른
역설이 내게로 온다. 그저, 모두가 최선을
다 해 가는 각자의 삶엔 이 세상의 모든
질병과 궁핍조차도 감내할 만큼 강력한
무언가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본다.

참고문헌

알베르 까뮈, 〈시지프 신화〉 김화영 옮김, 1997, 책세상, p.
18, 21, 28

Linker, K. ed. (1984) Representation and
Sexuality In: 〈Art After Modernism: Rethinking
Representation〉, New York: The New Museum of
Contemporary Art, p. 391-416

Poisoned spy mystery Was it radioactive pill

BY JOHN HIGGINSON

FORMER Russian spy Alexander Litvinenko may have been poisoned with a radioactive pill, doctors treating him said yesterday.

It was initially thought the 44-year-old KGB colonel was given thallium, a highly-toxic heavy metal used in insecticides and rat poison.

But toxicologists say he has suffered such severe bone marrow and blood cell damage that he may have been given a radioactive substance which is potentially more dangerous.

The consultant caring for him at University College Hospital in London said further tests were needed to establish the cause of his condition.

Dr Amit Nathwani admitted the cause of the exiled KGB colonel's illness might not be thallium but his patient could need a bone marrow transplant.

A hospital spokesman said: 'Mr Litvinenko is being treated in intensive care so he can receive cardiac monitoring and specialist support.'

'Based on results we have received today and Mr Litvinenko's clinical features, thallium poisoning is an unlikely cause of his condition.'

The news that thallium, which can be administered as an odourless, colourless poison, was not involved adds yet another twist to the Cold War-sty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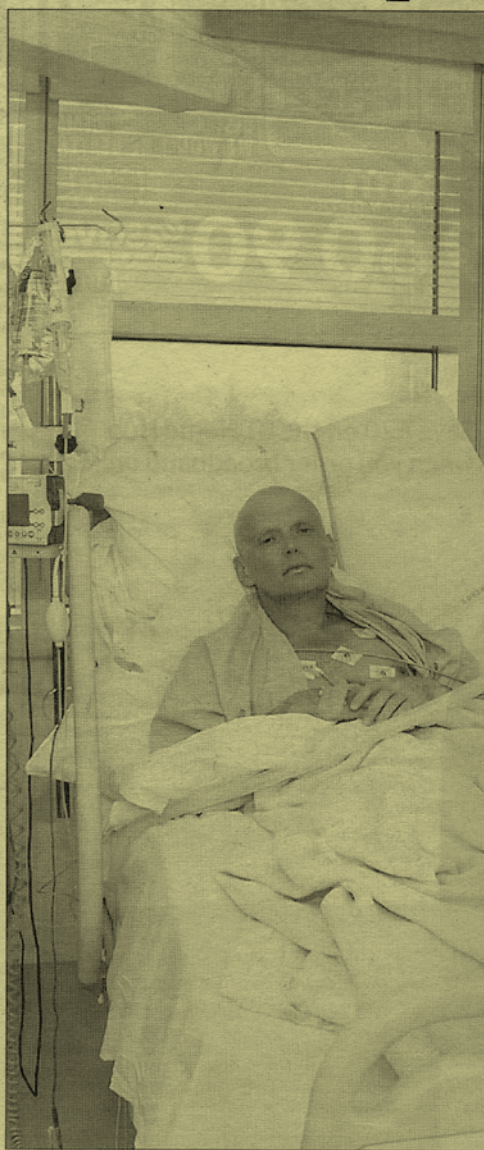
More tests:
Dr Amit
Nathwani

saga which began when Mr Litvinenko fell ill on November 1.

Earlier that day, he had tea at a London hotel with two Russian men — one a former KGB officer. Scotland Yard's counter-terrorism unit, led by Deputy Assistant Commissioner Peter Clarke, has been working on the theory that Mr Litvinenko was poisoned.

Mr Litvinenko is thought to have been targeted by Russian security services after he began investigating last month's murder of dissident Russian journalist Anna Politkovskaya.

In another development yesterday, Mr Litvinenko's friend Mario Scaramella, an Italian academic whom he also met on November 1, claimed the Russian had been passed death threats via e-mail. A confidential source said he had identified a group of Russian men who were targeting Mr Litvinenko for assassination.



Critically ill: Former KGB spy Alexander Litvinenko in hospital

Prescott 'is wasting millions on admin'



DEPUTY Prime Minister John Prescott is running up an annual bill of almost £2million in administration and office costs, it has been disclosed. Mr Prescott (pictured), who was stripped of his departmental responsibilities in last May's Cabinet reshuffle,

retains a staff of 16 civil servants and two special advisers to support him in his ministerial duties. In a written Commons statement, Mr Prescott said he had been cleared by the Treasury to spend £1.96million. The Conservatives claim it is a 'scandalous' waste of taxpayers' money.

MOSCOW FURY AFTER BRITAIN EXPELS SPIES

Tit-for-tat with Russia looming

LARA.DEAUVILLE

@thelondonpaper.com

DIPLOMATIC relations with Russia worsened today amid promises of retaliation for the expulsion of four Russian intelligence officers from Britain.

Prime Minister Gordon Brown insisted he would give "no apologies" for the move, sparked by Moscow's refusal to hand over the ex-KGB agent accused of murdering Alexander Litvinenko in London.

Britain was "not prepared to allow a situation of lawlessness to develop in London as a result of a failure to act", the premier said in Berlin.

The step was among measures announced by Foreign Secretary David Miliband in response to the Kremlin's refusal to extradite Andrei

Lugovoy. He said there was a "significant body of evidence" against Lugovoy and the measures would send a "clear and proportionate" signal to Moscow that it should send him to face trial.

The Russian Government branded the move "provocative" and "immoral", saying it would have "the most serious consequences for Russian-British relations as a whole".

Foreign Ministry spokesman Mikhail Kamynin said the UK was trying to justify its own refusal to extradite tycoon Boris Berezovsky and Chechen separatist figure Akhmed Zakayev to Russia.

He said Russia would aim to resolve issues constructively. But tit-for-tat expulsions rarely seen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seem likely.

미국시위대에 드러나고 러시아에 맞선다

TIMELINE



7 October 2006: Ex-spy Alexander Litvinenko investigates death of journalist and Chechnya war critic Anna Politkovskaya

1 Nov: Litvinenko meets contacts at a sushi bar in Piccadilly. Falls ill hours later and is hospitalised

20 Nov: The Kremlin dismisses poisoning claims

23 Nov: Litvinenko dies in London hospital

27 Nov: Russia asked to co-operate

4 Dec: Detectives fly to Moscow and warned investigation could harm diplomatic relations

27 Jan: Media criticised for naming Andrei Lugovoy as suspect

19 Mar: President Putin (above) accused in plot

25 May: Attorney General insists Lugovoy face UK murder trial

16 Jul: Britain says it will expel Russian diplomats after Moscow's refusal to hand over Lugovoy



MURDERED | Litvinenko

30 SUSPECTED RUSSIAN AGENTS IN LONDON

Spies just four of many

FOUR Russian secret agents expelled from Britain by the Government last night are just a fraction of the real number of intelligence officers working in London.

As British officials today awaited the reaction from Moscow to the expulsion – a bid to force the extradition of Andrei Lugovoy, the prime

suspect in the investigation into the murder of former Russian spy Alexander Litvinenko – it emerged there are as many as 30 Russian spies monitoring the growing Russian dissident community in London.

British counter-intelligence officers say the number of high-ranking Russian agents

in the capital is at its highest since the Cold War.

The Foreign Office will also impose restrictions on visas issued to Russian officials wanting to visit the UK.

Foreign Secretary David Miliband said: "The UK has a duty to ensure the safety of the large Russian community living in the UK."

MURDER VICTIM WAS CHINESE STUDENT

HEADLESS THAMES

100 EVACUATED AFTER HUGE WWII BOMB FOUND

Chaos caused by monster of Blitz

RICHARD MORIARTY
@thelondonpaper.com

HITLER'S attempts to obliterate the East End caused traffic chaos this morning – after workmen discovered an unexploded 500lb bomb.

Police immediately set up a 200m no-go zone after the Second World War device was discovered on a building site just off Palmer's Road in Bethnal Green.

Up to 100 residents were evacuated from their homes and forced to spend the night with friends and relatives, a spokesman for Tower Hamlets confirmed.

Today, an Army bomb disposal unit was trying to make the bomb safe so it could be moved and dealt with else-



where. The bomb, one of the largest ever found, is believed to have lain undisturbed for 65 years.

Fears it might explode meant Roman Road, which runs to Bethnal Green Tube station, was closed this morning, causing chaos on the roads and the Underground.

“It's bizarre to think they found a bomb in Bethnal Green”

CAROLINE OATES, 26,
LOCAL RESIDENT

A spokesman for the Metropolitan Police said: “People are advised to avoid the E2 area due to disruption caused by the discovery of a large WWII bomb.”

During the Blitz, which ran from September 1940 to May 1941, hundreds of Luftwaffe bombers attacked the East End almost every night in a bid to destroy the morale of the British public. In the first

three months, the Germans dropped more than 13,000 tonnes of bombs on English towns and cities – and many of them failed to explode.

Local resident Caroline Oates, 26, a research consultant, said of the bomb alert: “Bits of my building were blocked off and the road behind the house and nearby Meath Gardens were closed.

“It was a bit chaotic. I was puzzled by what was going on. I only found out it was a bomb when I got to work. I wondered what all the fuss was about.”

“It's bizarre to think they found a bomb in Bethnal Green.”

The council has set up an emergency hotline number: 020 7364 7000

01/05/07.

MISS BODY IN IDENTIFIED

WIDIANE.MOUSSA
HANNAH.SUMMERS

@thelondonpaper.com

A HEADLESS corpse fished out of the Thames last month was named this morning as Chinese student Xing Xing Xie.

The 23-year-old's body, dressed in just a skirt and bra, was found stuffed in a laundry bag off South Dock Marina in Rotherhithe on 19 April. Her head and hands had been sawn off in what detectives believe was an attempt by her killer to disguise her identity.

But DNA tests confirmed it was the body of missing student Xie, who lived near Waterloo station. She was last seen by her flatmate four days before her body was found in the river, Southwark Coroner's Court heard as an inquest was opened and adjourned today.

Coroner John Sampson said: "She went out on the 15th and was reported missing by her flatmate a little bit later when she became concerned after she didn't return."

Det Insp Andrew Matrass quashed rumours the student had been pregnant. He said: "It's not true - I don't know where that rumour came from. We believe she was born in China and was studying in London. She had been here since about 2002 and had several visa extensions."

He added: "I would guess that whoever cut off her head and hands did so to make identification more difficult. It didn't work."

One man has been arrested and bailed, but Matrass said police were "still actively seeking" those involved in the killing.

The coroner adjourned the inquest for two months to allow the "ongoing" murder investigation to continue.

34 05

MYSTERY OF MAN'S SEVEN-STOREY P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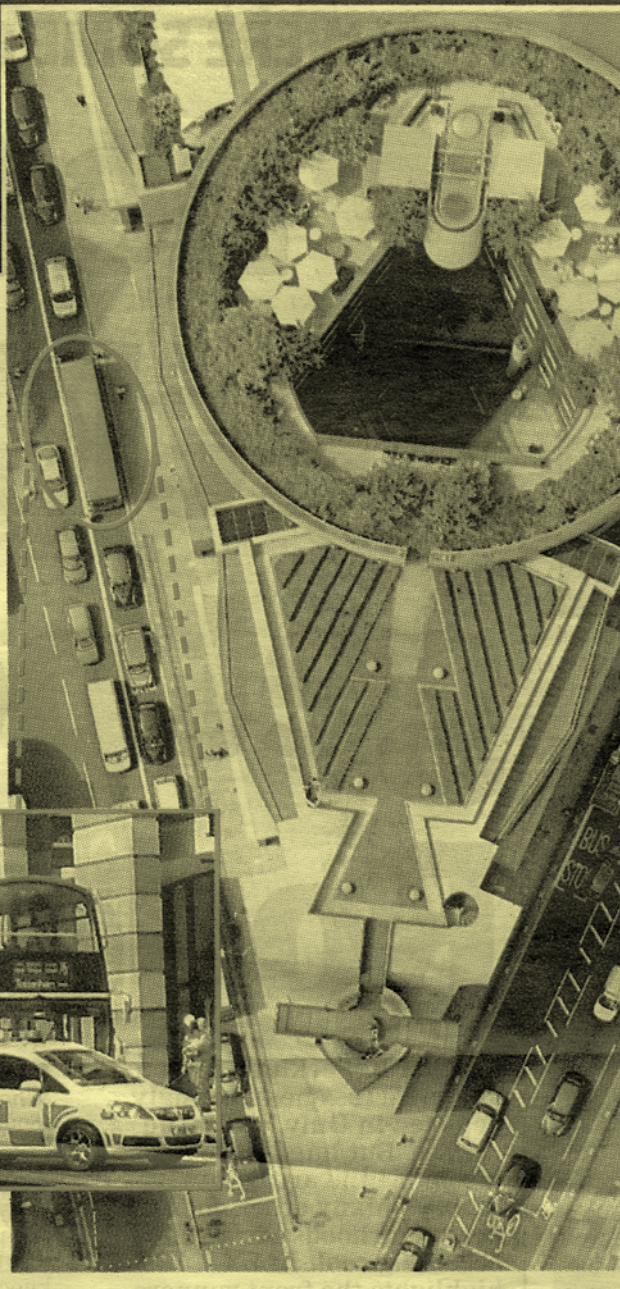
Probe into restaurant death leap

BY ANNA DAVIS

POLICE are today trying to find out why a City worker leapt 80ft from a rooftop restaurant to his death. The man, aged 25-30 and dressed in a suit, crashed down on to the roof of a packed double-decker bus at 11.40am yesterday. A policeman smashed a window on the bus's top deck to reach him, but he died at the scene. It is believed he had taken a lift to the seventh floor at the Conran restaurant Le Coq d'Argent in Poultry in the City, and climbed through an ornamental hole in the terrace. Labourer Shaun Carvin, 25, who was working nearby, said: "He slammed down on to the bus."



Horror in the City: emergency workers attend the scene where a man leapt to his death from Le Coq d'Argent's roof





CAUGHT ON CAMERA | Tatsuya Ichihashi, above, chief suspect in the murder of Lindsay Ann Hawker (right)

BATH MURDER

Japanese suspect revealed

LARA DEAUVILLE
@thelondonpaper.com

THIS is the man police are hunting in connection with the killing of "sand in the bath" murder victim Lindsay Ann Hawker.

Japanese police released the video today. Hawker's body was discovered on the balcony of Tatsuya Ichihashi's apartment in the city of Ichikawa, east of Tokyo, in March.

Officers say Ichihashi escaped when police arrived to question him about the missing 22-year-old. He lost his shoes and rucksack in the chase.

They hope the new footage of the 28-year-old, taken by a security camera in a lift in his apartment building, will help in the manhunt.

A police spokesman in Ichikawa said: "We hope to get more information from the public."

Hawker's father Bill, who flew to Japan to identify his daughter's body, said she

"was not in any sort of relationship with the suspect".

He added: "I believe my daughter was tricked into going to this man's apartment under the pretext of giving English lessons."

"My daughter was a lovely girl—she would have helped anybody. And it was because she would help anybody that she is where she is now."



Accept North Ko- rea into the nucle- ar club or bomb it now

북한을 핵
보유국 클럽
에 가입시키
거나 당장
폭격하라

So what now? North Korea is the fourth, possibly fifth, state to have rejected the 1970 non-proliferation treaty and proceeded towards a nuclear arsenal. The others are India, Pakistan, Israel and perhaps Iran. That makes five states in the old nuclear club (America, Russia, Britain, France and China) and five in the new one. The appropriate relationship, diplomatic, military and moral, between the two clubs is now a consuming world obsession. There is no easy answer. If strategically secure countries such as Britain and

그래서 어쩌란 말인가? 북한은 1970년 핵 확산 금지 조약을 거부하고 핵실험을 수행한 네 번째, 혹은 다섯 번째 국가가 된다. 그 외 국가들은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그리고 추정되는 이란이다. 이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다섯 국가로 구성된 구 핵 보유국 클럽과 함께 신 핵 보유국 클럽을 이루게 된다. 두 클럽 간의 적절한 외교적, 군사적, 도덕적 관계는 이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에 쉬운 해답은 없다. 영국, 프랑스 등 전략적으로 안전이 보장된 국가들이 궁극의 방위 수단으로 핵 미사일을 원한다면 왜 이란과 북한은 안 되는가?

... 빅5국들은 지난 반세기 동안 핵무기를 보유해 왔고 1970년 핵 확산 금지 조약 2항이었던 군비 축소 논점을 모독하며 핵무기 포기를 거부한다. 그 외 핵무기 보유국 및 유사 핵무기 보유국은 이스라엘, 인디아, 파키스탄, 신빙성이 의심되는 두통의

France want nuclear missiles as an ultimate line of defence, why not Iran and North Korea?

... The big five have had nuclear weapons for half a century and refuse to give them up, dishonouring the 1970 treaty's second pillar on disarmament. Of the other nuclear and quasi-nuclear powers, Israel, India and Pakistan are regarded as vaguely reliable, Iran a headache and North Korea a nightmare. The treaty was always hypocritical, policed by those states whose security it confirmed.

... If this relaxed view is not viable in North Korea's case (as opposed to Iran's), there is only one sensible alternative. It is not to drag out a conflict through economic sanctions to eventual war, but to curb North Korea's ambition in the simplest possible way. Sophisticated air power, useless in counter-insurgency, has a role in the "coercive diplomacy" of non-proliferation.

... If Kim is the unstable menace he appears, his bomb-making capacity and missile sites should be removed at once with Tomahawk missiles. Fewer people would die that way than with any other pre-emptive response.

이란, 그리고 악몽의 북한이다. 자국의 안전이 보장된 국가들에 의해 규제된 핵 확산 금지 조약은 늘 위선적이었다.

... 북한의 경우 (이란과 달리) 편안한 전망의 여지가 없다면 단 하나의 이성적 대안이 있다. 경제적 구속을 통해 대립을 끌어 내 궁극적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야망을 가능한 한 단순한 방법으로 억제하는 것이다. 대(對) 파괴전에는 쓸모 없는 고도의 공군력도 핵 확산 금지 조약의 "강제 외교"에 한해서는 임무가 있다.

... 만일 김정일이 보여지는 대로 불안정한 위협이라면 그의 폭탄 제작능력 및 미사일 소재지는 토마호크 미사일로 단번에 제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다른 어떤 선제공격보다 적은 수의 사람들이 사망할 것이다.





Mystery of the poi- soned spy

Alexander Litvinenko, the former KGB agent living in exile in London, died in hospital last night, three weeks after apparently ingesting a mysterious poison which has baffled doctors.

... Mr Litvinenko, 43, a fierce critic of the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suffered a heart attack on Wednesday night and his condition had been deteriorating rapidly.

... The saga began on November 1 when Mr Litvinenko meet two Russian men, one of them a former KGB officer, at a London hotel on November 1. Later that day he meet the Italian academic Mario Scaramella at a sushi bar in Piccadilly where it is said he received documents claiming to name the killers of the Russian journalist Anna Politkovskaya, another vocal critic of President Putin, who was shot outside her Moscow flat on October 7. Several hours later he began to feel

독살된 스파이 미스테리

런던에서 망명 중이던 전직 KGB 요원 알렉산더 리트비넨코가 지난 밤 병원에서 사망했다. 치료진들을 당황케 한 불분명한 독물 섭취로부터 3주 후였다.

...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신랄한 비평가였던 43세의 리트비넨코는 수요일 밤 심장발작을 겪었고 이후 상태가 급속히 악화되었다.

... 이 대하 드라마는 11월 1일 리트비넨코가 전직 KGB 사무관을 비롯 두 러시아 남성을 런던의 호텔에서 만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같은 날 피카딜리의 스시 바에서 이탈리아인 학자 마리오 스카라멜라를 만난다. 이곳에서 그는 러시아인 기자이자 푸틴 대통령의 또 다른 혹독한 비평가였던 안나 폴리트코프스카야의 살해범들을 지목하는 문서를 전해 받았던 것으로 알려진다. 그녀는 지난 10월 7일 모스크바의 자택 밖에서 총살당했다. 몇 시간 후 리트비넨코는 몸 상태가 좋지 않음을 느꼈고, 이후 병원으로 옮겨져 열흘 후 “심각한 독물 중독” 판정을 받았다. 11월 17일까지 상태가 악화되었으며, 무장

unwell and was admitted to hospital. Ten days later he spoke of it being a “serious poisoning”. By November 17, his condition worsening, he was placed under armed guard in hospital and reports emerged that he might have been poisoned with thallium, a highly toxic substance.

_ "The Hung Drawn and Quartered" had been a unique punishment of UK which had executed people only for treason for centuries. There is a famous pub in London named after this punishment.

경호원들의 호위 아래 병원에 입원되어 있었다. 그가 강도 높은 독물인 탈륨에 중독된 것이 아닌가 하는 보고가 대두되었다. (이후, 독물은 그가 호텔 바에서 마신 차에 들어 있던 폴로늄 210으로 밝혀졌다)

_ 건물 간판의 The Hung Drawn and Quartered 라는 명칭은 과거 영국에서 반역 죄인에게만 행해졌던 형벌의 이름으로, 동명의 펍이 당시 처형터였던 타워 힐 부근에 소재해 있다.





"Mystery of the poisoned spy, 1 Nov 2006" Title from CBSnews, 2007, Lightjet Print, 160x120/100x76cm

Entertainers' suicides in succession, why?

연예인의 잇단 자살, 왜?

South Korean actress Jeong Da-bin was found dead early Saturday in what seems to have been a suicide due to depression, according to police and her acquaintances. Police officials said Jeong, 27, was found hanged in a bathroom of her boyfriend's house in Seoul around 7:50 a.m. The boyfriend, identified only by his surname Lee, said he took Jeong back to his house because she got drunk while hanging out with friends at a nearby bar. The police suspect that she committed suicide considering there was no sign of murder, and are trying to determine the exact circumstances of her death.

Observers say Jeong seems to have been suffering from depression, citing comments she posted recently on her personal blog. Jeong, known for her cheerful and positive image,

지난달 21일 가수 유니의 자살이 충격을 준 지 채 한달이 지나기도 전인 10일 오전 텔런트 정다빈씨가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2년 전에는 우울증을 앓던 영화배우 이은주씨도 집에서 목을 매 자살해 사회적인 충격을 줬다.

... 이런 연예인 또는 유명인의 자살은 다른 사람에게 모방 자살 충동을 느끼게 하는 이른바 '베르테르 현상'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높아 더욱 사회적인 파장이 크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정다빈씨는 유니가 자살한 다음날인 지난 22일 자신의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명이란 제목으로 유니에 대해 "한번도 마주쳐 본 적도 없지만 너무나 갑작스러운 안타까운 일로 마음이 아프다. 하늘나라에서 부디 편안하시길... 머리가 멍하다"'는 글을 남겼다.

삼성서울병원 윤세창 정신과 교수는 "유명인의 자살 뒤에는 다른 사람이 동조 의식이 자신의 자살을 합리화하는 효과를 나타내 죽음이 해결책이라는 생각을

became a South Korean pop culture star in Taiwan in 2005, and appeared in a number of hit television dramas and movies in her own country over the past few years. If confirmed to have been a suicide, Jeong's death would be the latest case of a South Korean celebrity taking his or her own life.

Female singer Yuni committed suicide on Jan. 21, while movie actress Lee Eun-joo killed herself in February 2005.

쉽게 하게 되기 때문에 모방이 잇따를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윤 교수는 “2005년 2월 영화배우 이은주씨 자살 직후 한달간 자살하는 사람의 숫자가 하루평균 0.84명에서 2.13명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볼 때 우울증을 앓은 사람과 자살 기도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따뜻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ntertainers' suicides in succession, why?, 10 Feb, 2007", Title from Yeonhapnews, 2007, Lightjet Print, 160x120/100x76cm

Dead whale found on the shore of Jeju island

제주 해안서 죽은 고래 발견

A dead whale was found on a rock off the coast of Jeju Island. A Coast Guard of Jeju said Mr. Lee(44), the chief of the village, found the body of a whale 80m from the coast and reported this on November 11 at around 10 am. Officers declared that the body was approximately 11m wide, with a girth of 4m, divided into two halves. It is said to hard to classify the species or the original shape of the whale. The Coast Guards has appealed to investigate the cause of the death of whale, and the body will now be transferred to Mr. Lee if there is no evidence of an attempt of illegal whaling.

제주도 서귀포 해안가 바위에서 죽은 고래가 발견됐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10시경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해녀 탈의장 앞 80m 해상에서 이 마을 어촌계장인 이모씨(44, 대정읍 하모리)의 고래사체 발견 신고를 받고 현장 확인한 결과, 길이 약 11m, 둘레는 약 4m로 2등분된 고래를 확인했다. 이번에 발견된 고래사체는 심하게 부패돼 뼈가 보이는 상태로, 죽은 지 오래된 것으로 추정됐다. 따라서 고래 종류나 형태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전언이다. 제주해경은 최초 신고자를 대상으로 고래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불법 포획의 흔적이 없을 경우, 최초 발견자에게 고래사체를 인계할 방침이다.





"Dead whale found on the shore of Jeju island, 12 Nov, 2006" Title from Ecojournal, 2007, Lightjet Print, 160x120/100x76cm

Chaos caused by monster of Blitz

대공습의 괴물이 일어난 혼란

About 100 people have been moved from properties in east London after a large World War II bomb was uncovered. The device was discovered by workmen working on a building site off Palmers Road in Bethnal Green at about 1745 BST on Monday. A 200-metre cordon was set up on Roman Road and a rest centre was established for evacuees at Bethnal Green Technology College in Gosset Street. Metropolitan Police officers and a specialist army unit were at the site. A spokesperson from Tower Hamlets council said: "About 100 people have been evacuated from properties in the immediate area of where the bomb was discovered." Nearby roads were closed off to traffic, and the cordon was expected to stay in place overnight.

이스트 런던에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폭탄이 발견되어 100여명의 주민들이 대피했다. 이 폭탄은 월요일 오후 5시 45분 경, 베스날 그린의 팔머스 로드 밖 건물 부지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들로부터 발견되었다. 200미터 길이의 교통 차단표지가 로만 로드와 고셋 스트리트의 베스날 그린 공대에 대피소가 조직되었다. 타워 햄릿 카운슬의 소식통에 따르면, 정확히 폭탄이 발견된 지점의 건물로부터 약 백 명 가량이 피신했다. 주변 도로 교통이 통제되었고 밤 동안 교통 차단표지가 남아있을 것으로 보인다.





"Chaos caused by monster of Blitz, 15 May, 2007", Title from The Londonpaper, 2007, Lightjet Print, 160x120/100x76cm

Headless body found in Tham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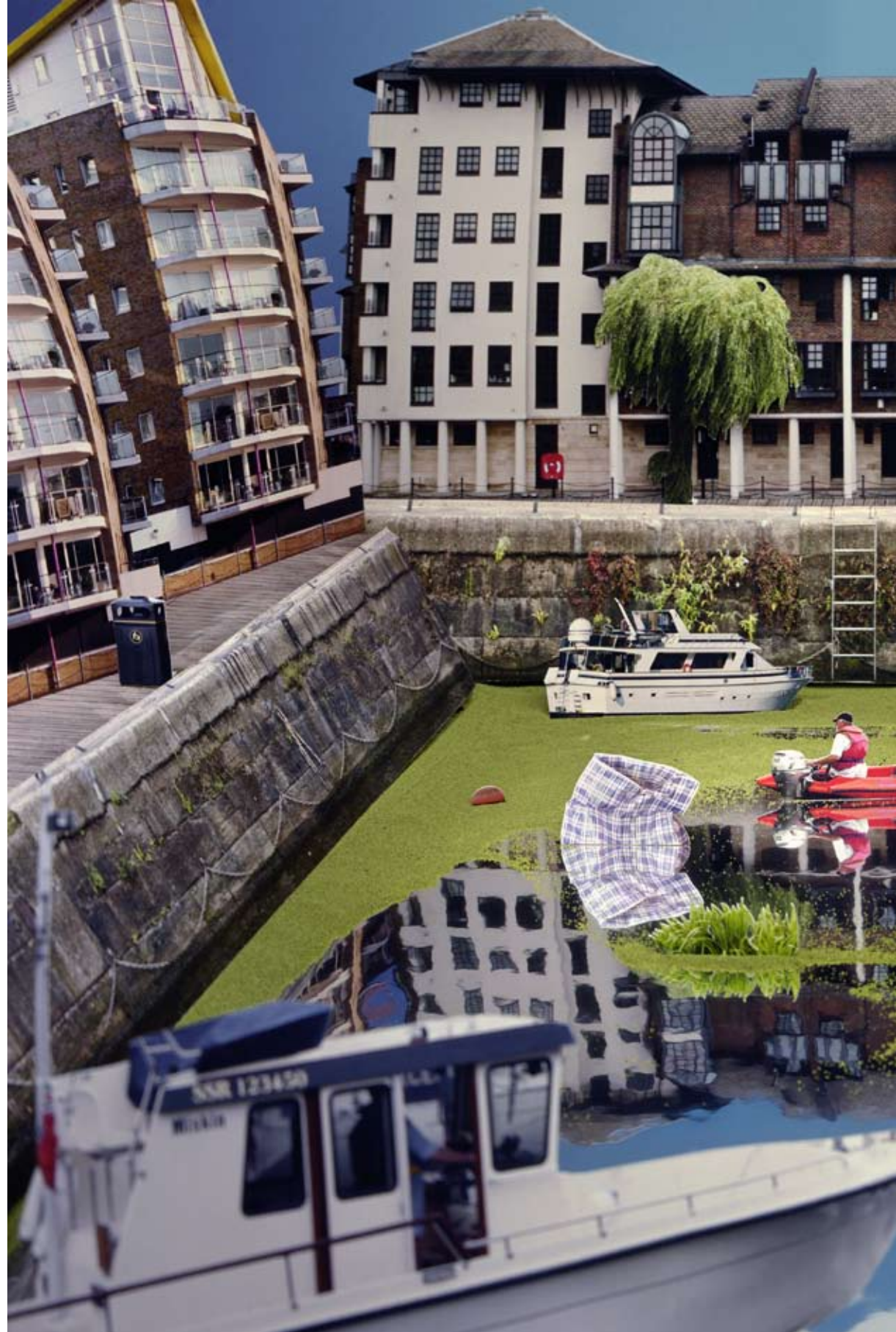
템즈강에서 머리 없는 시체 발견

Police investigating the murder of a woman whose headless body was found in the River Thames have arrested a man. Passers-by raised the alarm when they spotted a suspicious bag on the river at the South Dock Marina near Greenwich, south-east London. Inside the bag, officers found the clothed body of a white woman with her head and hands missing. The suspect arrested by detectives lives locally and he was bailed to return to a police station in May. The bag is approximately 3ft (0.91m) wide and 2ft (0.61m) deep and has red, white and blue checks, resembling a tartan pattern. Det Ch Insp(Detective Chief Inspector) Carl Mehta appealed to people who have seen anyone with a bag matching the description in the vicinity of the marina. A post-mortem concluded the cause of death as neck injuries caused by a sharp instrument. (separate article)

템즈 강에서 발견된 머리 없는 여성 살인사건을 조사중인 경찰이 한 남성을 체포했다. 사우스 이스트 런던의 그리니치 근처 사우스 독 마리나 강에 의심스러운 가방이 떠 있는 것을 본 행인들이 의문을 제기했고, 수사자들은 가방 안에서 머리와 양 손이 분실된 채 옷을 입은 백인 여성의 시체를 발견했다. 체포된 용의자는 인근에 거주 중이고 5월에 경찰서에 출두하게 된다. 가방은 약 가로 0.91m 세로 0.61m 크기로, 타탄 패턴과 같은 붉고 희고 푸른 체크무늬가 있다. 칼 메타 경감은 마리나 부근에서 이와 같은 가방을 든 인물을 본 사람이 없는지 조사에 나섰다. 검시관은 사망 요인을 날카로운 도구로 인한 목 상해로 결론지었다.

(이후 기사) ... 누어 모드-유소프(21) 와 트라치 론 지안(26)이 23세의 징 징 지이 살해와 관련 기소되어 월요일 레드브릿지 판사 앞에 설 예정이다. 징 징 지이의 몸은 머리와 손이 잘려 나간 채, 지난 4월 사우스 이스트 런던 로더하이드의 사우스 독 마리나에서 발견된 가방 속에 들어 있었다. 그녀는 지난 5년 간 사우스 런던의 램베스에 거주했었다. ...

... Noor Mohd-Yusoff, 21, and Trach Lon Gian, 26, are due before Redbridge magistrates on Monday accused of killing 23-year-old Xing Xing Xie. Her body, with her head and hands removed, was found floating in a bag in South Dock Marina, Rotherhithe, south-east London in April. She had lived in the UK for five years in Lambeth, south London. A post-mortem examination revealed the cause of death as neck injuries caused by a sharp instrument.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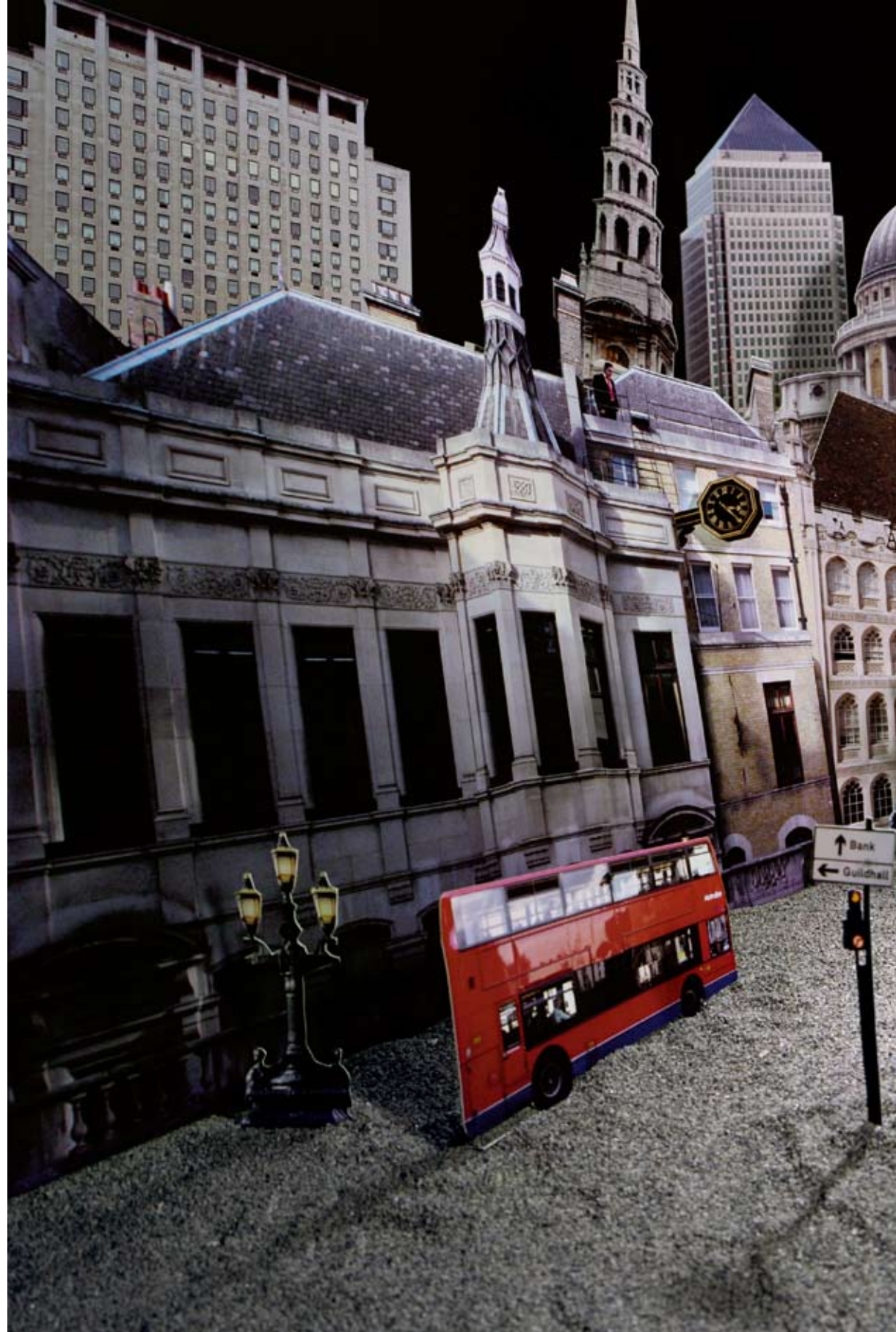
"Headless body found in Thames, 21 April, 2007", Title from BBC News, Lightjet Print, 2007, 160x120/100x76cm

Man hits bus roof after 70Ft death plunge

A man smashed into the roof of a packed double decker after plunging 70 feet to his death from a posh rooftop restaurant in the heart of the City of London today. The smartly-dressed man plummeted from the seven storey restaurant and slammed headfirst into the No 76 bus, leaving a large dent in the metal roof. Shocked passengers were led shaking from the blood-smeared bus after the apparent suicide, at around 11.40am. Eyewitnesses described seeing a man in a suit falling from the exclusive Coq d'Argent eaterie on the terrace of the office block no1 Poultry, near the Bank of England.

70피트 높이에서 투신한 남자 버스 지붕에 부딪히다.

오늘 런던 시티 지역 중심부의 고급 레스토랑 옥상에서 70피트 아래로 투신한 남성이 이층 버스 지붕에 충돌했다. 말끔한 차림새의 이 남성은 7층 레스토랑으로부터 머리쪽부터 수직 하강해 지나가던 76번 버스에 크게 패인 자국을 남기며 부딪혔다. 오전 11시 40분 경 이 명백한 자살에 의해 피로 물든 버스를 본 행인들의 충격은 공포로 이어졌다. 목격자는 정장 차림의 남성이 영국 은행 근처 No1 폴트리 건물의 고급 레스토랑인 코크 다르장 테라스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다.





"Man hits bus roof after 70Ft death plunge, 29 May, 2007", Title from UK News, 2007-2008, Lightjet Print, 160x120/100x76cm

British teacher found buried in bathtub of sand

Police in Japan have launched a manhunt after the body of a missing British woman was found buried in a bathtub filled with sand on the balcony of an apartment near Tokyo. The woman, whose body was discovered late on Monday, was yesterday identified as Lindsay Ann Hawker, a 22-year-old teacher from Coventry. The owner of the apartment, Tatsuya Ichihashi, fled when police arrived and has yet to be found. Local media described Mr Ichihashi, 28, as an “acquaintance” of the dead woman. Police said they had obtained a warrant for

모래 욕조 속에서 발견된 영국인 교사

도쿄 근교의 아파트 발코니에 놓인, 모래로 가득 찬 욕조 속에서 실종된 영국 여성의 시체가 발견되어 일본 경찰이 범인 수사에 나섰다. 월요일 오후 늦게 발견된 이 여성은 코벤트리 출신 22세의 교사 린지 앤 호커임이 어제 밝혀졌다. 아파트 주인 타츠야 이치하시는 경찰이 도착함과 동시에 도주해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지역 언론은 28세의 이치하시를 사망한 여성의 “면식인”으로 서술했다. 경찰은 유기된 사체에 관해 이치하시의 체포 영장을 입수했다고 밝혔으나, 린지 앤 호커의 살해범으로 지목하지는 않았다.

Mr Ichihashi's arrest on charges of abandoning a body; they did not name him in connection with the killing of Ms Hawker.





"British teacher found buried in bathtub of sand, 28 March, 2007", Title from Guardian unlimited, 2008, Lightjet Print, 160x120/100x76cm

Ayoung Kim

Education

2005-2007 BA (Hons) Photography, London
College of Communication, London, UK

1997-2002 BA Visual Communication Design,
Kookmin University, Seoul, Korea

Solo Exhibition

2008 Space VAVA, Seoul, Korea

Group Exhibition

2009

T.error - Your Fear Is an External Object,
NURTUREart Non-Profit INC., New York,
USA (forthcoming)

2008

4482 Contemporary Korean Artists in London,
Barge House, London, UK

T.error - Your Fear Is an External Object,
Menupont Galeria, Mucsarnok (Kunsthalle)
Budapest, Budapest, Hungary

The 2nd Bridge: Scope in *The Bridge*, Gana Art
25th Anniversary, Insa Art Space, Korea

Welcome Home Party, Gallery Sun
Contemporary, Seoul, Korea

30th Joong-Ang Fine Arts Prize Selected Artist
Show, Hangaram Museum, Seoul Arts Center,
Seoul, Korea

Lateral Thinkers - from the Mind to the Wall
in Darmstadt days of photography 2008,
Mathildenhöhe, Darmstadt, Germany

김아영

교육

2005-2007 런던 컬리지 오브 커뮤니케이션
BA(Hons) 사진학과 졸업

1997-2002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시각디자인학과 졸업

개인전

2008 개인전, 스페이스 바바, 서울

단체전

2009

"Your Fear Is An External Object",
NURTUREart Non-Profit INC., 뉴욕, 미국
(예정)

2008

"4482 Contemporary Korean Artists in
London", Barge House, 런던, 영국

"T.error - Your Fear Is An External
Object", Menupont Galeria, Mucsarnok
(Kunsthalle) Budapest, 부다페스트, 헝가리

가나아트갤러리 개관 25주년 기념전
"BRIDGE" 중 "The 2nd Bridge: 시선의
권리- Scope", 인사아트 스페이스, 서울

"Welcome Home Party" 5인전,
갤러리 선 컨템포러리, 서울

"제30회 중앙미술대전 선정작가전",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 서울

"Lateral Thinkers-from the Mind to the
Wall" in Darmstadt days of photography
2008, Mathildenhöhe, 다름슈타트, 독일

2007

The Alchemy of Shadows, The 3rd LIPF 07
(Lianzhou International Photo Festival 2007),
Lianzhou, China

4482 Contemporary Korean Artists in London,
King's Park Studio, London, UK

Design Made: Hotelida, Hangaram Design
Museum, Seoul Arts Center, Seoul, Korea

Traces of Document (part of Freerange Festi-
val), The Old Truman Brewery, London, UK

Hills Like White Elephants, SSamzie Space,
Seoul, Korea

2006

An Event in London, The Plum Tree, London,
UK

Awards

2nd Prize, 30th Joong-Ang Fine Arts Prize,
Korea

NArt 2008 (New Artist Trend) grant awarded,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Korea

Selected Portfolio 2008, Space VAVA, Seoul,
Korea

Publicity

"Lateral Thinkers - from the Mind to the Wall"
- *Darmstadter Tage der Fotografie* 2008 Catalog,
p. 48~53 and p.199, Germany, 2008

"Szintetikus Világok", *Fotóm vész*, p.80, Hun-
gary, Feb 2008

"Photographer of the future – discovered by Ute
Noll", *Photographie*, p.60~65, Germany, Nov
2007

2007

"The Alchemy of Shadows", LIPF 07
(란저우 사진페스티벌2007), 란저우, 중국

"4482 Contemporary Korean Artists in
London", King's Park Studio, 뉴몰든, 영국

"Design made 호텔이다", 예술의 전당
한가람 디자인 미술관, 서울

"Traces of Document", The Old Truman
Brewery, 런던, 영국

"Hills Like White Elephants",
쌈지스페이스, 서울

2006

"An Event in London", The Plum Tree,
런던, 영국

수상 및 기타

제 30회 중앙미술대전 우수상

서울문화재단 NArT (New Artist Trend)
젊은예술가 지원 프로그램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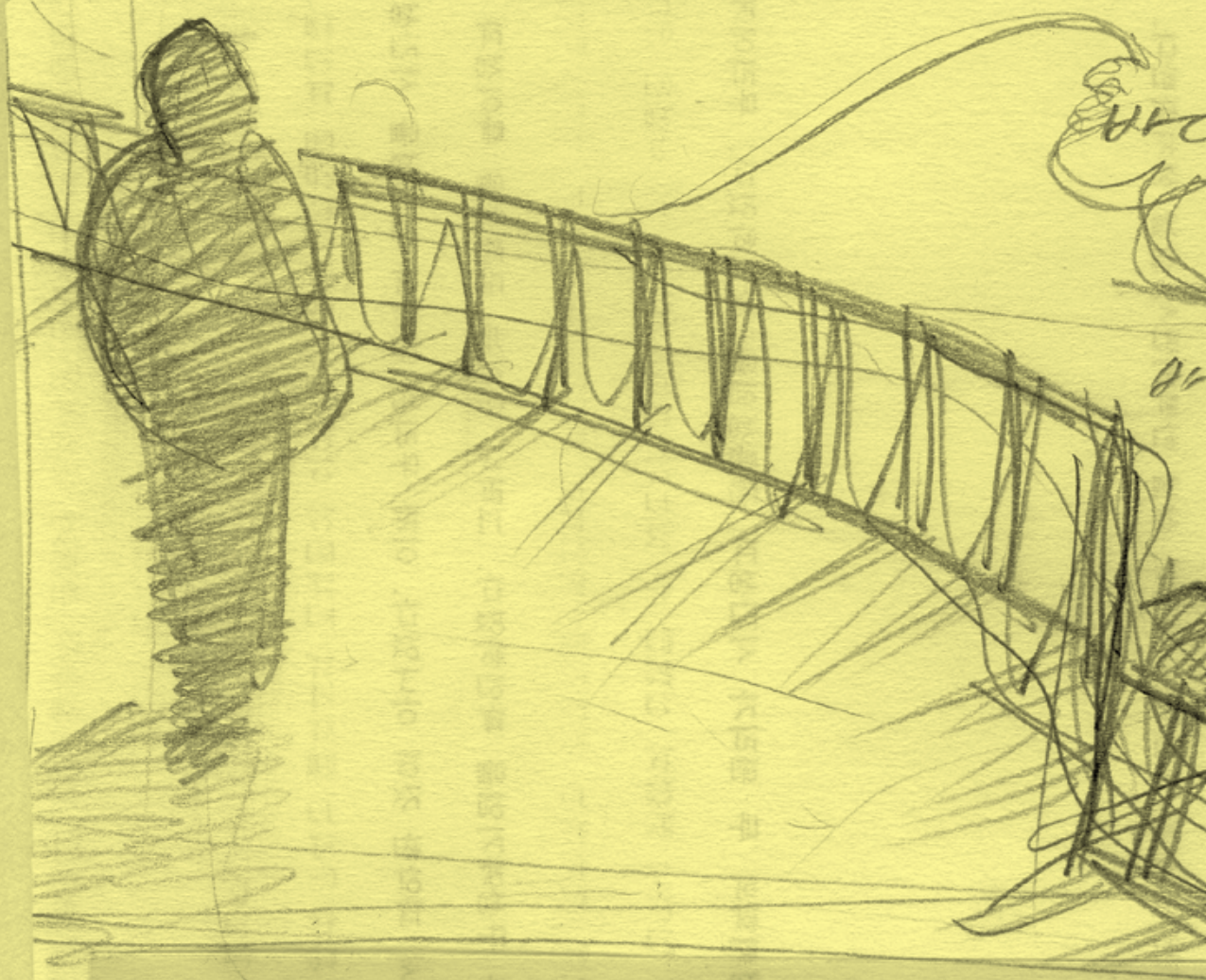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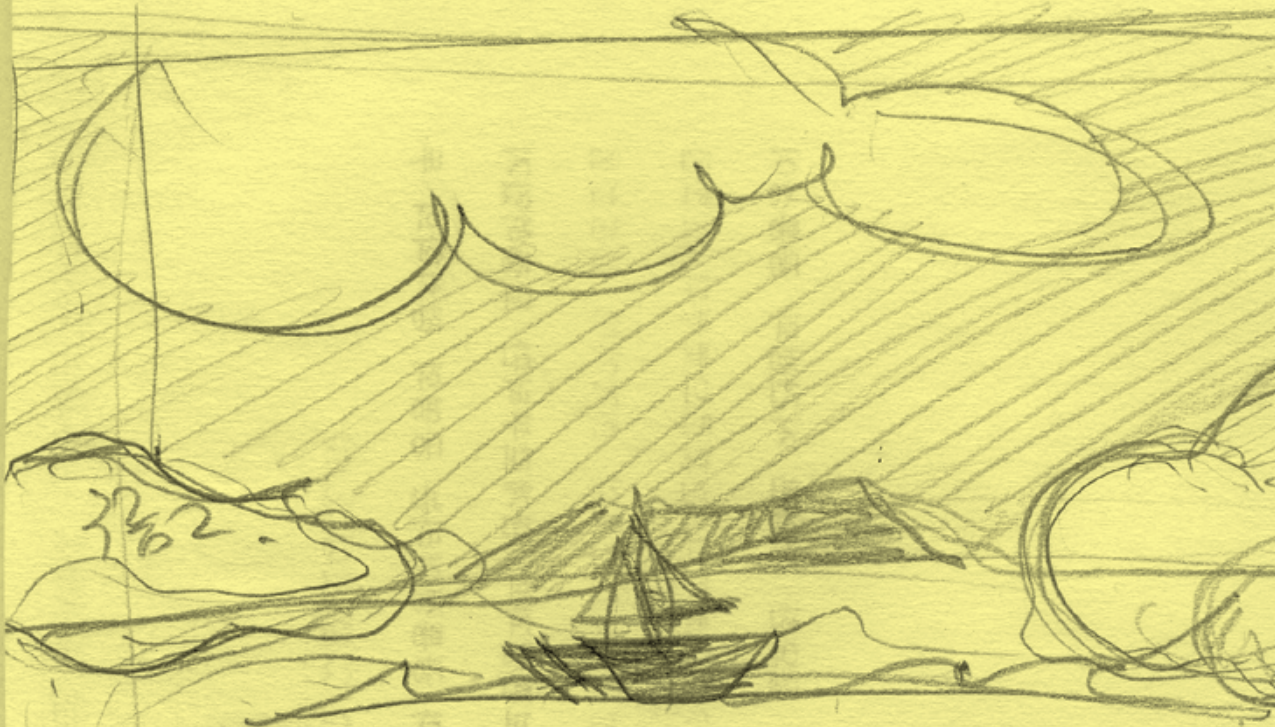
스페이스 바바 포트폴리오 리뷰 개인전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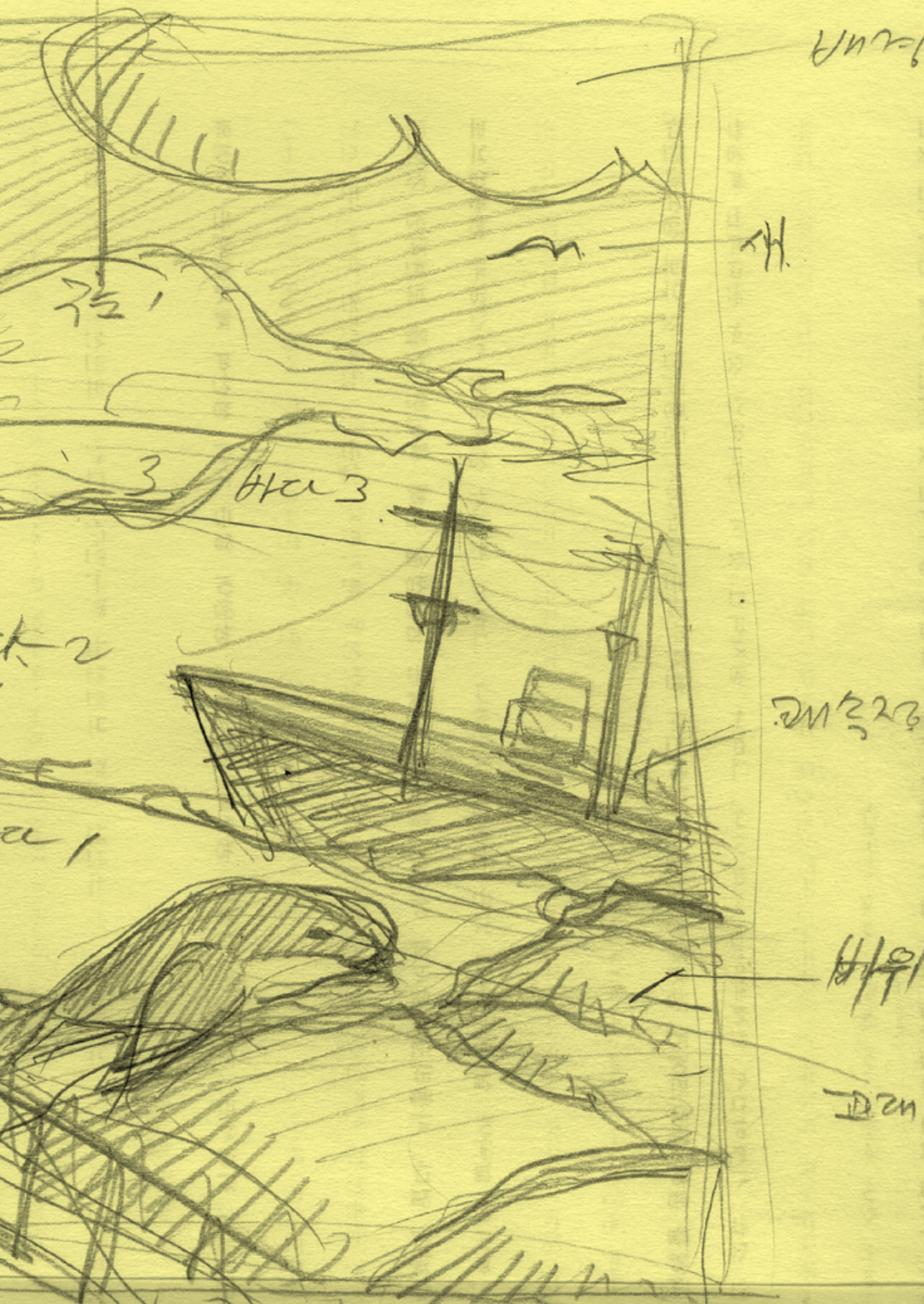
보도물

"Lateral Thinkers-from the Mind to the
Wall"-*Darmstadter Tage der Fotografie*
2008 도록, p. 48~53, 199, 독일

2008, 02 "Szintetikus Világok", 월간
Fotóm vész, p.80, 헝가리

2007, 11 "Ute Noll이 발견한 미래의 사진작가
Photographers of the future – discovered
by Ute Noll", *Photographie*, p.60~65, 독일









AND QUARTERED

Ticket
Price
\$10.00
All Day



YDI sushi

sal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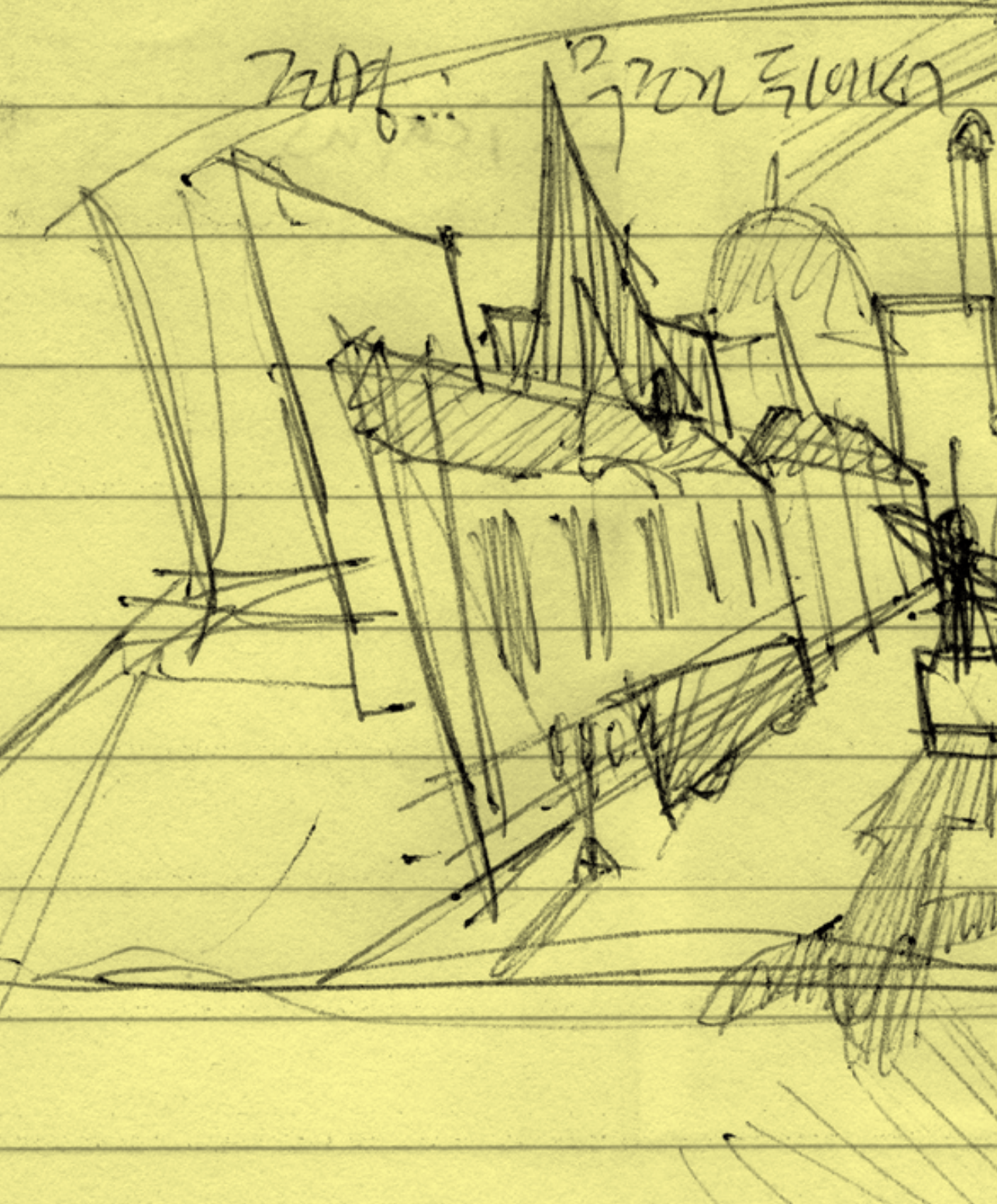
sush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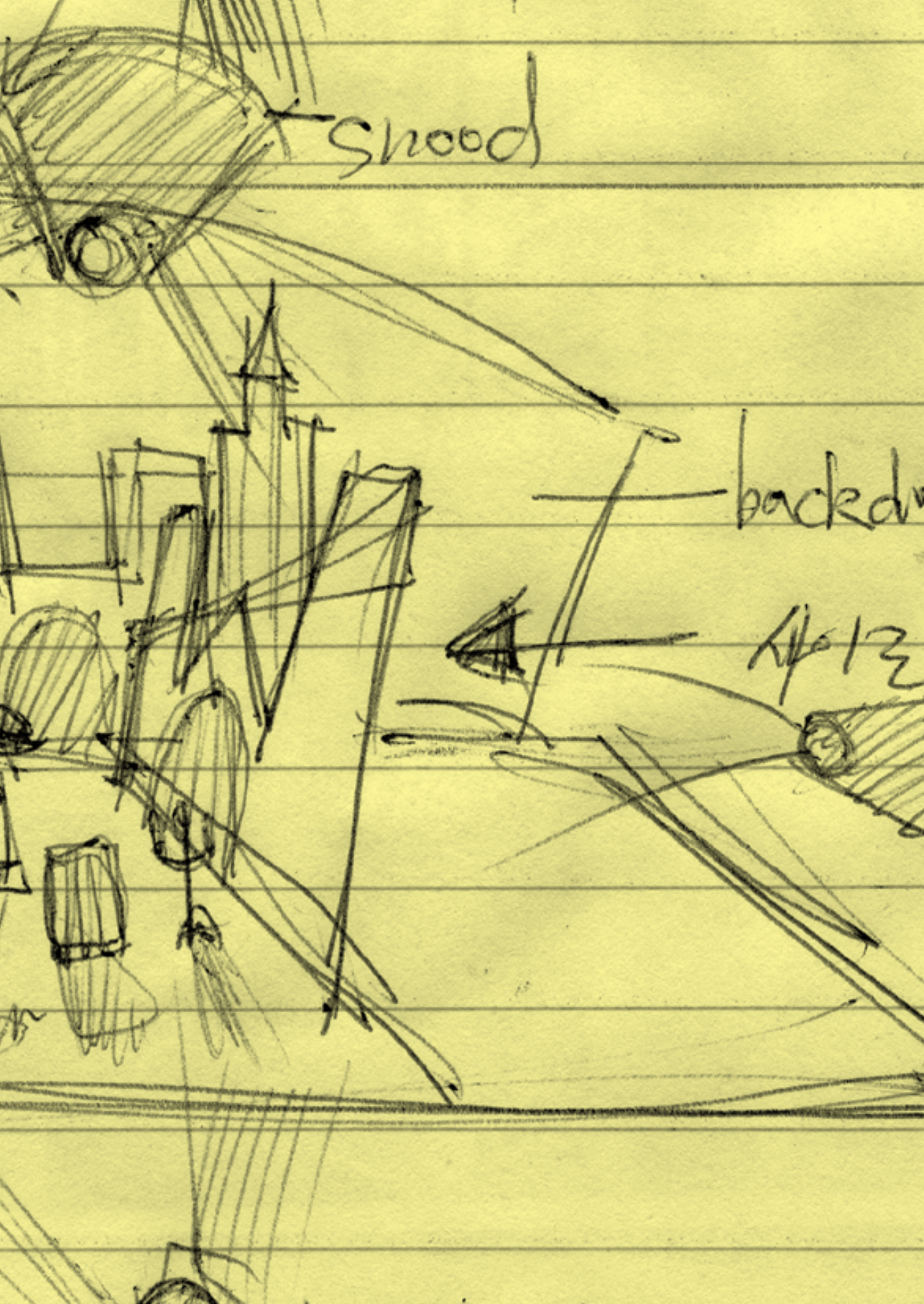
tea

TAXI

2011...

2011.12.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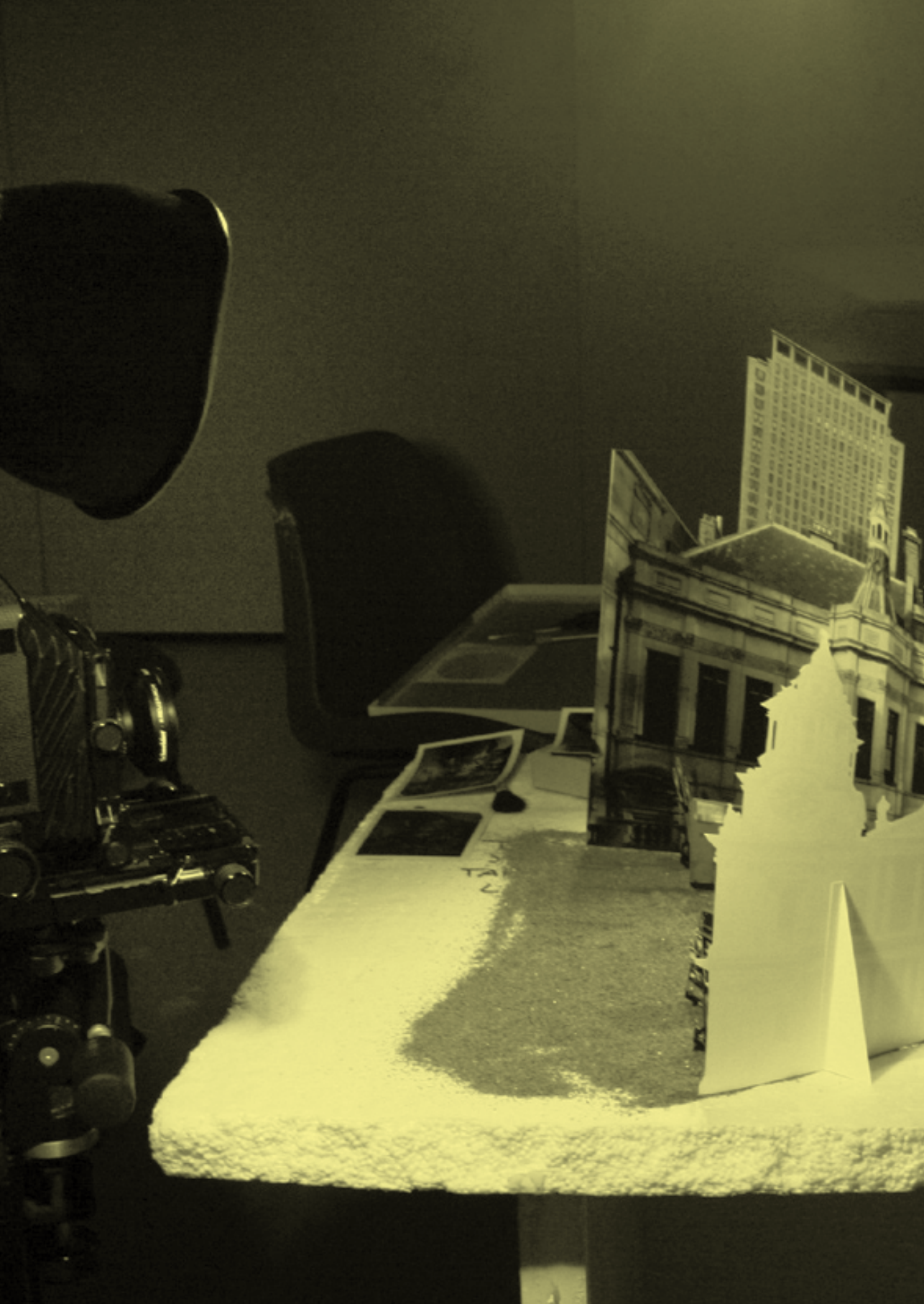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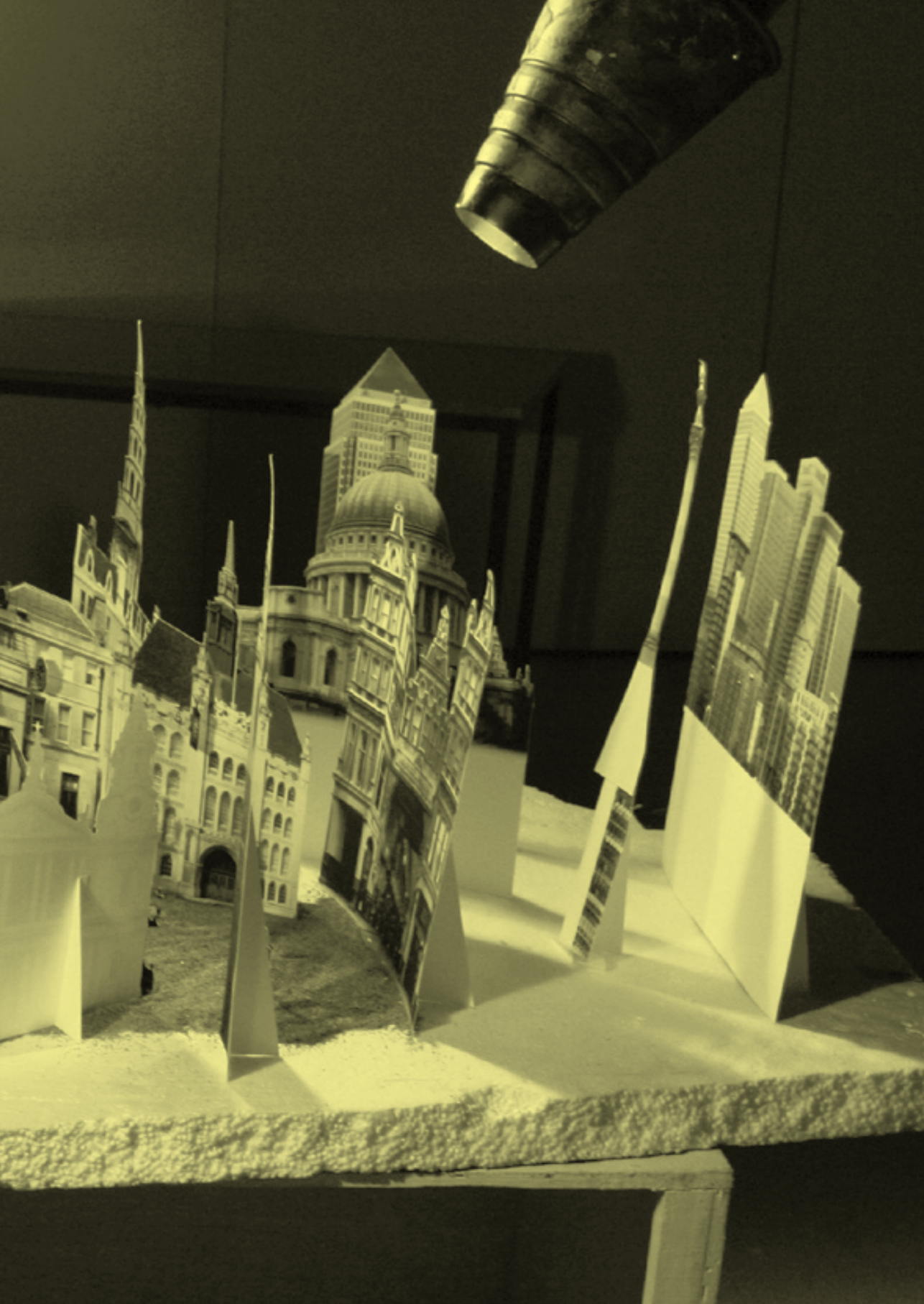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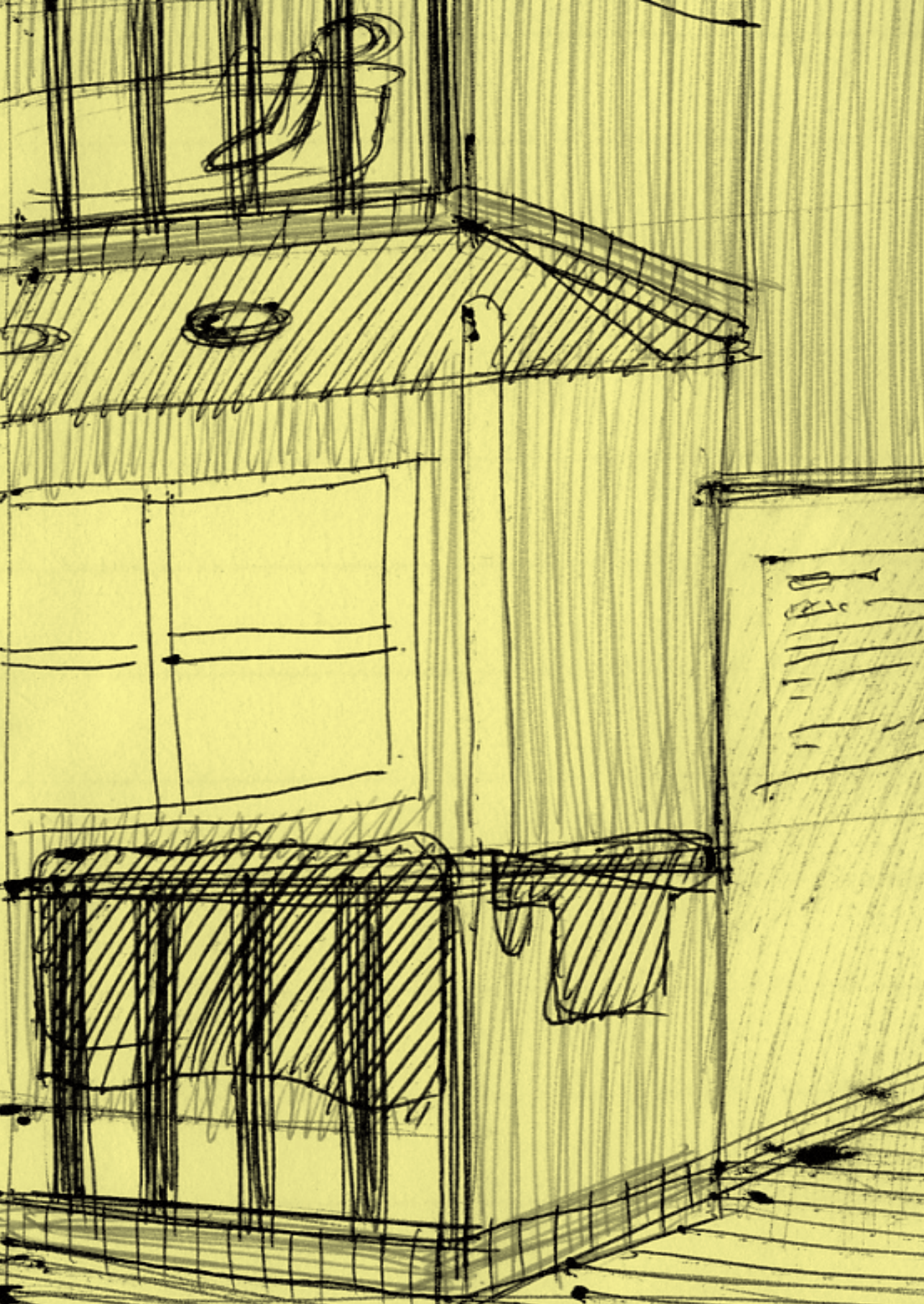
Sho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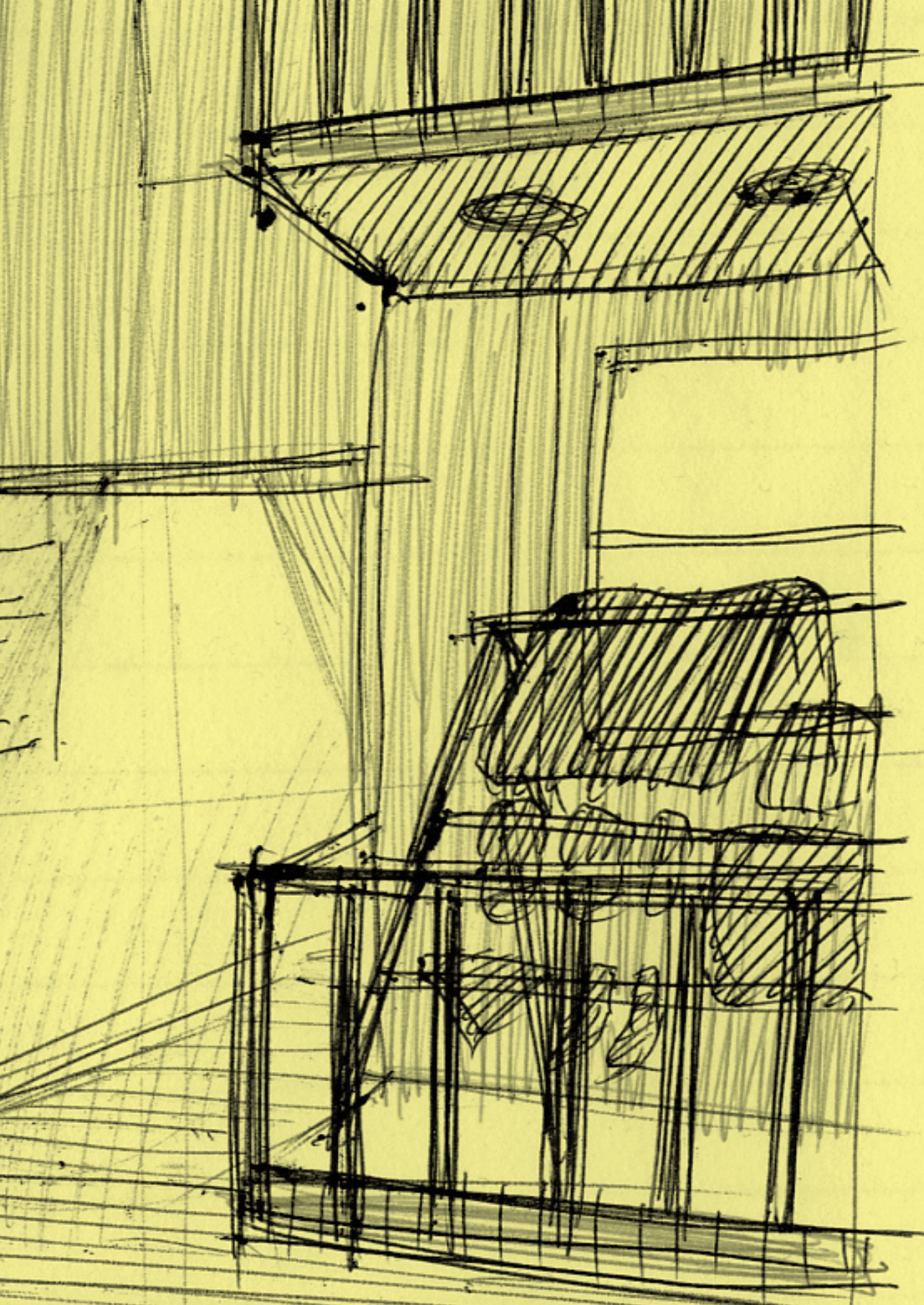
backdr

A/13















THE YOUNG
BOND

558 123456
123456 789







Ayoung 김

